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64호 【루계 제25042호】 주체104(2015)년 9월 21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당창건 일흔돐이 다가오고있는 지금 온 나라에 총공격전의 기상,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라선시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여가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교조격전장들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가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공장과 기업소, 사회주의협동벌 그 어디에서나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타오르고 이 땅에 흐르는 분과 초는 그대로 기적과 혁신으로 이어지고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당창건 일흔돐을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오늘의 총공격속도에 더 큰 비약의 박차를 가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계속 드세차게 벌려나감으로써 혁명적열정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긍지높이 떳떳하게 들어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육탄이 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이려는 일념을 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년초부터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고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이 힘있게 떨쳐지고있다. 건설과 과학, 체육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전례없는 성과들은 온 나라를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고 천만군민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지금 우리는 당창건 70돐을 눈앞에 두고있다. 그야말로 있는 힘과 지혜를 총발동하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질풍같이 내달려야 할 책임적인 시기이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 전쟁의 불구름까지도 다 막아주는 위대한 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고결한 의리심은 오늘의 투쟁을 통하여 더욱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

오늘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기 위한 투쟁이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원칙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이 준 과업은 최상최대의 믿음이며 한치도 드팀수 없는 지상의 명령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사소한 리유와 구실을 모르며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는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신념의 맹세이며 당이 가리키는 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의 진격로이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기에 우리 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의 틀림없는 실천이다. 당의 사상과 정책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만능의 백과전서로 틀어쥐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 좋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당의 사상을 신념화하고 당정책결사관철로 가슴 불태우는 일심단결의 총진군대오가 있기에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은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게 될것이다.

오늘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굳건히 보위하는 투쟁이다.

우리 인민은 모진 고난속에서도 변함없이 당만을 굳게 믿고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이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은 절대적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봉쇄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난관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당을 따르는 인민들의 신념을 허물어보려는것이 원쑤들의 음흉한 속심이다. 그러나 적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신념의 기둥은 절대로 무너뜨릴수 없다.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믿음과 신뢰심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초석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당중앙이 세계앞에, 인민들앞에 선포한 시간은 순간도 드팀수 없다는것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고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해나가는 길에 가장 열렬한 충정이 있다는것이 인민군군인들의 철석의 신념이다. 오늘의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과감히 벌려나갈 때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주체의 당기가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승리의 결승선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후돌격전에로 부르고있다. 우리는 결사의 각오와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백날, 천날 맞잡이로 헌신분투하며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맥박쳐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전구 백두산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려야 한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온 나라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타고, 지난 4월 자신께서 발전소건설장을 다녀간 때로부터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상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청년강국의 주인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가 되고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일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작전하고 전개하며 높은 사업실적으로 당중앙의 권위를 옹호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로선을 지침으로 삼고 전투현장에서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밀고나가 자기 단위를 당의 지시가 쭉쭉 내려가는 청춘세포와 같은 활력을 지닌 단위, 전국적으로 자랑할만 한 본보기단위, 전형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만사가 다 잘되여나간다는 관점과 립장, 당의 사상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정책을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투철한 정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헌신성, 이것이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일군들은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박력있게, 참신하게 일해나가며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면서 앞채를 메고 내달리는 투쟁의 기수,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0.001㎜의 편차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과학자들처럼 조국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는 새로운 성과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인 농업전선에서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돌격전에 박차를 가하며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야 한다. 령도업적단위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본보기단위가 되여 앞장에서 내달리고 모든 단위들이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기운차게 솟구쳐야 한다.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평양시의 모범을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한다.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은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최강의 무기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공격방향에 군민의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맡겨진 전투과업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껴야 한다.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건설장과 라선시피해복구전투장을 비롯한 대교조전역들에서 군민협동작전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창조하고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전투를 완전무결하게 결속하여 10월의 하늘가에 로동당만세소리, 군민대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총포탄을 만들어 전선에 보내는 심정으로 설비와 자재들을 대교조전투장들마다에 끊임없이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건설장의 곳곳마다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고 힘있는 직관선전물들이 게시되여있는데 힘이 난다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건설장의 분위기만 보아도 당의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사상사업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미루지 말고 제때에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기동성있고 실효성있는 선전선동공세로 전투장들을 들썩이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처럼 방송선전을 하여도 전투적으로,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하고 직관선동을 해도 내용이 깊고 호소성이 높게, 간결하고 명백하게 하여 대중의 심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펄펄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거세찬 불길로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며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

백두의 넋과 기상안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자

1호발전소언제공사 완전 결속, 언제수문권양기실과 언정란간공사 완공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백두대지의 산협을 가로지르며 우뚝 솟아오른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공사를 완전히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앞에 결의다진대로 청년절을 맞으며 언제콩크리트타입을 성과적으로 끝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지난 10일까지 언제수문권양기실건축공사를 결속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건설장에 모시고 크나큰 기쁨을 드린 영예를 안고 그들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며 권양설비설치를 끝내고 18일에 마지막 10여m구간의 언정란간공사와 수십m의 언제도로포장에 달라붙어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기본건설대상인 1호발전소 언제의 모든 건축공사를 마감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총궐기해나선 백두청춘들과 건설자들의 애국헌신이 낳은 충정의 열매로서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백두대지에서 전력생산의 우렁찬 동음을 울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청년절을 맞으며 1호발전소 언제콩크리트타입을 빛나게 결속하고 어머니 우리 당에 승리의 보고를 올린 현장련합지휘부 책임일군들은 9월에 들어와 언제건축공사의 마감대상들인 언정란간과 수문권양기실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 좌안언제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언정란간 및 도로공사를 끝낸 황해북도려단이 새로운 전투초소로 기동한데 맞게 함경남도려단과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사이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남은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기동적인 작전을 펼치였다.

함경남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청춘의 용맹을 과시하여 마감공사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였다.

지휘부의 작전에 따라 좌안언제의 9, 7, 5블로크의 언정란간과 도로포장공사에 진입한 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루빨리 완공된 언제우에 모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애국충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란간휘틀설치를 앞세우고 현장조건에 맞게 혼합물운반속도를 높여 란간콩크리트치기를 와닥닥 끝낸 이들은 도로포장공사도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하였다.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앙양된 그 기세로 우안언제에 또다시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수문지지틀 콩크리트치기에서 높은 속도를 기록하였다. 우안언제 중력부콩크리트치기에서 발휘한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그들은 휘틀높이를 종전보다 2배로 늘이고 긴장한 타입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종전보다 매일 2배의 타입량을 기록하여 지난 10일까지 수문지지틀을 자기 높이에 올려세웠다.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수문권양기제작 및 조립설치를 짧은 기간에 해제껴 마지막건축공사를 앞당길수 있게 하였다. 이들은 수문권양기실건축공사가 적극 추진되는데 맞게 지상확대식조립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권양기지지틀을 비롯한 수십t의 철구조물들을 성과적으로 제작하였다. 지난 11일에는 언제우에 기중기차를 전개하고 4호언제기중기와 협동하여 수문실에 대한 철구조물 및 부재설치를 단숨에 끝내고 짬콩크리트치기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으며 12일에는 권양기실의 부재설치작업까지 끝내였다.

발전소건설장에 또다시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전투장인 우안언제에 모신 크나큰 영광을 안고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함경남도려단의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마지막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로동자들은 지난 14일부터 수문권양기실의 모든 설비와 장치구조물들에 대한 설치전투에 들어갔다. 그들은 비좁은 언제우에서 기중기차와 자동차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십t이 넘는 권양기지지틀을 자기 자리에 정확히 들여앉히고 권양원통 및 쇠바줄설치 등을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당중앙을 옹위하여 성새, 방패를 이룬 청년대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1호발전소언제건축공사를 빛나게 장식할 충천한 열의밑에 지난 18일 마지막구간의 언정란간건축공사와 언제도로포장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전격전, 립체전의 불길높이 란간콩크리트타입을 불과 몇시간만에 끝낸데 이어 도로포장전투에 진입하여 19일 오전 8시까지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완공을 앞둔 발전소건설장에 모시고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린 전체 백두청춘들과 건설자들은 1호언제공사를 빛나게 결속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2호발전소를 비롯한 모든 대상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크나큰 믿음에 더 높은 발전설비생산성과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전설비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대안의 로동계급이 그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불타는 마음안고 원산군민발전소에 보내줄 발전설비들을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전부 생산보장할것을 결기하고 더욱 분발하여 발전설비생산과 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전달받는 모임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진행하고 생산자대중을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총동원된 속에 전투가 벌어지는 여러 생산현장들에서 힘있게 울리는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당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대안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분출시키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원산군민발전소에 보내줄 발전설비가공전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다른 대상건설에 쓰일 대형설비생산전투도 립체전의 방법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자재보장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고 생산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그리고 후방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 생산자대중의 투쟁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온 기업소에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일고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발전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발전설비가공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교대간 련계를 강화하며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앞선 가공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설비들의 가공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보이라제관직장 로동자들은 뜻깊은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한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분발하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보내줄 대형보이라제작전투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그들은 대형보이라를 기한전에 제작하고 방직공장현지에서 설치공사를 책임적으로 진행할 열의에 넘쳐 절단과 용접, 연마 등 모든 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치차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공구준비를 면밀히 갖추고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여러 대상에 쓰일 가공품들의 생산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보내줄 미루대치차와 순천화력발전소에 보내줄 대치차를 비롯하여 화력발전소들에서 쓰이게 될 부분품생산과 여러 대상설비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공구생산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불타는 애국열의를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공구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안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에 대한 무한한 충정을 안고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적극 지원하여 그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 높은 생산성과로 당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할 열의에 넘쳐 발전설비생산과 대상설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년간 배수리계획 넘쳐 수행

원산선박수리공장에서

원산선박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 배수리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고기생산을 늘이자면 배수리기일을 지켜야 합니다.》

계획수행기간 공장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년초부터 들끓는 생산현장들을 맡고 내려가 배수리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부속품들을 미리 마련해놓아 배가 들어오는족족 제때에 수리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기관수리종합작업반 로동자들이 년간 배수리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작업반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맡겨진 기관수리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설비들을 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토시와 피스톤을 비롯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년간 배수리계획수행에 이바지하였다.

선체수리종합작업반에서는 배수리기일을 어김없이 보장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매달 배수리계획을 1.5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특히 작업반에서는 용접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매달 선체수리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면서도 용접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주물종합작업반에서도 적은 전력을 가지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수 있게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설비들을 개조하여 공장이 년간 배수리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보장단위들에서도 자체의 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려놓고 설비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공장앞에 맡겨진 배수리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뜻깊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위대한 당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선시큰물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은 지금 온 나라를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당과 국가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부강조국건설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큰물피해지역의 사랑하는 인민들과 군인들을 찾아 머나먼 하늘길, 배길을 달려 조국의 최북단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웅당한 본분이라고, 우리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몰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큰물피해복구전투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천만군민이 이런 심장의 웨침을 터치고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

이 말은 당의 령도밑에 저 멀리 북변도시의 피해복구전투장에서 창조되는 전화위복의 기적과 더불어 사람들의 가슴을 다시한번 크게 울려주며 그 심오한 의미를 소중히 새겨보게 하고있다. 그 의미는 라선시피해복구전투장을 찾으시여 큰물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 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그런데 오늘 현지에 와서 당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장병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것을 직접 보니 근심걱정이 다 사라지는것만 같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절세의 위인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에 실려 이 땅의 천만의 심장마다에 더더욱 진폭이 큰 메아리를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직 세멘트가루와 흙먼지가 날리는 피해복구전투장을 찾으셨던 그날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셔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 정녕 얼마나 위대한 당의 고마운 품이 뜻하지 않은 자연피해로 불행에 처한 라선시인민들의 운명과 미래를 따뜻이 보살피고 지켜주고있었던가.

지난 1일 라선시의 모든 학교들에서는 다른 지역의 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랑랑히 울리였다.

보통때와는 달리 조국땅 한끝에 있는 이 북변도시의 학교들에서 울린 수업종소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여운은 컸다. 라선시가 례년에 없는 무더기비에 의해 큰물피해를 입어 수많은 인민들이 집과 세간을 잃었으며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에 동원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것은 불과 며칠전이였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라선시인민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한 때 우리 당에서는 큰물피해때문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있을세라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해당한 조치들을 취하여 피해복구전투가 한창인 여기 라선시에서도 배움의 글소리가 변함없이 울리도록 해주었다.

비록 감탕과 퇴적물들이 곳곳마다에 쌓이고 도시와 마을 그 어디에나 성한것이 없지만 피해지역 인민들은 자식들의 개학준비때문에 여념이 없었다.

조국땅 한끝의 큰물피해지역에서 울린 교정의 첫 수업종소리, 그것은 단순히 학생들을 부르는 선생님들의 정다운 목소리이기 전에 우리 당의 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얼굴에 그늘이 지는 자식이 단 한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위대한 어머니의 간곡한 목소리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어머니당을 우러러 목메여 터친 로동당만세소리이기도 하였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진정어린 심장의 웨침이 그 종소리에 담겨있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해온 우리 당 70년사의 자랑스러운 총화가 거기에 그대로 실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하루빨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높여 일편단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예로부터 불난 곳에는 남는것이 있어도 큰물뒤에는 건질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모든것을 앗아가는 큰물이 나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세상에는 대자연의 횡포한 광란이 큰물피해를 몰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사실이 그 얼마인가.

하지만 보기 드문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시에서는 오히려 복받은 새 생활이 마중해오고있었다.

지난 8월말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이 뜻깊은 회의에서 제일먼저 토의된 중요의제는 바로 라선시큰물피해복구대책문제였다.

나라의 중대사를 론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개 지역의 큰물피해복구대책문제를 토의한다는것은 사실상 전례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인민의 운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는 이것이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취급해야 할 순간도 미룰수 없는 중대사였고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당이 지체없이 먼저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였다.

라선시의 큰물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까지 조직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회의참가자들은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솟구치는것을 금치 못하였다. 뜻하지 않게 조성되였던 전쟁위기로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상황속에서도 인민들의 운명을 걱정하시며 마음 못놓으시였고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북변땅의 수재민들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셨을 그이의 가슴속에는 오직 인민만이 꽉 차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눈굽을 축축히 적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이 즉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장으로 급파되고 어디서나 조국땅 한끝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성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였다.

이렇듯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시인민들을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면서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시며 걱정을 못 놓으시던 그이의 크나큰 심중의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온 나라가 뜻깊은 청년절을 앞두고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준비하고있던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라선시가 혹심한 큰물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큰물피해로 집과 집세간을 잃은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것은 물론 당창건 70돐을 한지에서 맞게 된다고, 오래지 않아 추위가 닥쳐오겠는데 피해복구를 지방에만 맡겨놓을수는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라선시피해복구를 전당, 전국, 전군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불뭉치같은것이 불쑥 솟구쳤다.

라선시인민들이 큰물피해를 입은데 대해 걱정을 하면서 대책을 세운다고는 하였지만 그들이 당창건 70돐을 한지에서 맞게 된다는데 대해서, 더구나 오래지 않아 닥쳐오게 될 추위에 대해서까지는 미처 생각이 닿지 못하였던것이다.

우리 당의 품에 안겨사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 있건 설사 큰물피해를 입어 일시적인 불편을 느끼여도 하루빨리 안착된 생활을 안겨주어 다같이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하게 경축해야 한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마음이였고 뜨거운 진정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걱정에 젖은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력량을 총집중하여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당창건 70돐전으로 끝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피해를 입은 라선시를 단순히 원상복구할 생각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자신께서는 이번 기회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자고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큰물이 몰아온 화를 새 생활창조의 복으로!

이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인민사랑의 결단이였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당에서만 취할수 있는 중대조치였다.

그래서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시인민들뿐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는 말이 격정속에 흘러넘치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

이 말은 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우리 인민의 마음속진정의 토로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의 70년사는 인민들에게 보람찬 새 삶과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며 흘러온 창조와 건설의 행로라고도 할수 있다.

그 잊지 못할 70년의 나날에 어쩔수 없게 닥쳐든 큰물피해때마다 우리 인민들이 언제 한번 헐벗고 굶주리며 한지에 나앉아 자기 운명을 한탄해본적이 있었던가.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당이 창건되여 진행한 첫 대자연개조사업이 보통강개수공사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10년나마 걸려야 한다던것을 불과 50여일사이에 끝낸 이 거창한 공사는 수도 평양의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자연과의 첫 전쟁이기도 하였다.

보통강개수공사완공 경축행사를 며칠 앞두고 평양지구에는 례년에 없던 무더기비가 내리였다.

대줄기같이 내리꽂히는 장마비, 퇴성벽력, 무시무시한 폭풍…

그전같으면 온 평양지구가 큰물에 잠겼겠지만 자연의 동란은 수도 평양을 어쩌지 못하였다.

주체56(1967)년에 평양시는 횡포한 자연의 광란으로 하여 대동강이 불어나 뜻하지 않은 큰물피해를 입게 되였다.

큰물이 나면 아무것도 남는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당의 손길아래 그때부터 대동강에는 오히려 겹겹이 미림갑문, 봉화갑문, 순천갑문을 비롯한 많은 갑문들이 생겨났고 날바다를 가로막은 서해갑문이 일떠섰으며 그것으로 하여 실지 없어진것은 수도를 위협하던 대동강의 물란리였다.

그 나날 대동강을 길들여 인민의 강,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전변시키는것을 중요한 당정책적인 문제로 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언제인가는 지팽이까지 짚어 가시면서 대동강상류에 녕원언제위치를 잡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눈물겨운 헌신의 자욱자욱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큰물피해걱정을 영원히 모르게 된 수도시민들이 오늘날 대동강물결우에 싣는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그대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당의 품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진실한 고마움의 찬가인것이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위대한 정치가의 령도를 받는 당만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우리 당이 자기의 성스러운 페지에 새겨넣은 귀중한 철리이다.

인민을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선생으로 여기신분,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을 삶의 좌우명으로 간주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수놓으신 감동깊은 사랑의 화폭이 우리 당건설사의 갈피마다에 얼마나 력력히 새겨져있는가.

우리 인민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어느해인가 무더기비로 광란하는 물살에 신의주지구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하게 되였을 때 몸소 구조전투를 진두지휘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하늘에서는 직승기가 날고 물우에서는 고속수송선과 수륙량용장갑차들이 달리였으며 땅우에서는 수송부대가 맹렬히 기동하여 립체전으로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냈다.

주체99(2010)년 큰물피해때에도 우리 당은 자연의 광풍을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막아주었으며 그 품에서 태여난 새 생명이 하늘가에 터뜨린 고고성은 그대로 재해지역 인민들뿐이 아닌 이 땅의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다함없는 고마움의 뜨거운 분출이였다.

나라없던 지난날에는 물란리에 집과 재산을 잃고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데도, 하소연할데도 없어 세상을 개탄하던 우리 인민이 오늘에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조국이 있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기에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고 두려움을 모른다.

하기에 뜻하지 않은 큰물피해로 가산을 잃으면서도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초상화만은 목숨으로 안전하게 보위하는것이고 자그마한 습기라도 스며들세라 조선로동당원증을 더욱 심장깊이 간수하는것이며 물속에 가라앉는 자기 자식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로 헤염쳐간 당원에 대한 이야기도, 동지들과 나라의 재산을 구원하기 위해 사품치는 물속에 서슴없이 한몸을 내댄 평범한 근로자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한 이야기도 생겨나게 된것이다.

세해전 혹심한 큰물피해가 검덕지구와 개천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지역을 휩쓸었을 때에도 우리 인민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애국충정의 열도는 얼마나 비상한것이였던가.

지난 8월 라선시를 휩쓴 큰물피해때에도 이곳 인민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재해속에서도 생명을 내대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초상화부터 안전하게 보위하였으며 자기 가산보다도 나라의 재산을 구원하기 위해 사품치는 물속에 뛰여들면서 일터를 떠나지 않았다.

걸출한 위인을 모신 위대한 당의 품에서는 인민의 모습도 이렇게 아름답고 억세여지는것이다.

이런 훌륭한 인민이기에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멀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마음쓰시는것이고 고생을 겪을세라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어머니당의 사랑을 깡그리 부어주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을 자신의 살붙이로, 하늘로 여기시며 늘 사선의 고비, 험난한 진펄길을 주저없이 걸으시면서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인민이 자리잡고있으며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려는 불타는 념원이 높뛰고있다. 그이의 이런 숭고한 인민관이 그대로 우리 인민군대의 정신력의 원천이 되고 기적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여 라선시의 피해복구전투장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전선에서 달려온 우리 군인들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천막을 치기도 전에 복구전투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의 등교준비까지 친형제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병사들의 진정을 눈물속에 읽으며 라선시인민들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고 격정을 터뜨린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큰물피해복구전투가 한창인 라선시에서는 얼마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화폭이 또다시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많은 량의 물고기를 여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내주신데 이어 또다시 그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자들을 보내주신것이였다. 온 라선시가 격정에 목메여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보내주시여 피해지역 인민들이 쓰고살 새 살림집을 지어주도록 하시고 식료품까지 보내주시였으니 친부모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다심하실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정말 어머니당의 품은 내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자애로운 품이라고, 당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큰물피해복구전투에 앞장서겠다고 진정을 터놓았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식료품을 자기들만이 먹을수 없다고 하면서 가져온 식료품들을 사양하는 군인들을 나무라며 건설장에 몰래 놓고가고 군인들은 또 그들대로 사연깊은 식료품의 주인인 인민들을 찾아다니는 눈물겨운 화폭이 온 큰물피해지역에 펼쳐졌다.

사회주의 내 조국의 본태와 미덕이 격랑치는 이런 뜨거운 진정속에 세상에 없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라선시피해복구전투장에서 높이 떨쳐지고있다. 큰물피해지역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전변시키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군민련합작전에 의하여 건설전투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피해지역들에서는 벌써 감탕 및 퇴적물처리가 마지막단계에 들어섰고 도로복구전투와 함께 보도블로크깔기, 특지조성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여 지구의 모습이 날로 변모되고있으며 살림집건설에서도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여 새로운 라선시가 태여나고있다.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시인민들에게 이전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며 그들도 함께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하게 경축하게 하려는 위대한 당의 은정깊은 손길에 떠받들려 라선시는 지금 몰라보게 달라져가고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당창건 70돐을 앞두고 멋쟁이로 일떠선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라선시인민들이 조국땅 한끝에서 10월의 하늘가에 터치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를 심장으로 들을것이다.

력사는 그 만세소리에서 라선시인민들뿐이 아닌 우리 천만군민이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어머니당에 드리는 가장 열렬하고 진실한 고마움의 정을 새겨안으며 자기의 페지에 이런 신념의 글발을 소중히 적어넣을것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

본사기자 김준혁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주체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는 청년대학생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것이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절대불변의 신조였다. 하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호위사업을 첫째가는 임무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시고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목숨으로 지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어머님의 한생은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어머니의 한생이였으며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의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사령관동지를 보위하는데서는 천번중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바로 김정숙동지의 한생을 관통한 좌우명이였고 삶의 드팀없는 신조였다.

사령부를 보위하는것을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제1차적인 과제로 여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시였다.

주체29(1940)년 6월 어느날 소할바령을 향해 행군하고있던 부대가 대사하치기에서 강에 들어서려고 할 때였다.

은밀히 매복하고있던 적들이 불의에 사격을 가해왔다.

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오를 친솔하고계신다는것을 알고 처음부터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검질기게 달려드는 적들은 가장 악질적인 《신선대》놈들이였다.

그처럼 극악한 원쑤들과 불의에 맞다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는 매우 위급한 정황에 놓이게 되였다.

이러한 정황속에서도 침착하게 주변의 지형지물을 일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창을 뽑아드시고 고지에로의 돌격명령을 내리시였다.

대원들은 골안이 들썩하게 나팔소리를 울리며 비호처럼 산릉선을 향해 달려올라갔다.

벽력같은 함성을 지르며 성난 사자와 같이 내닫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서운 기세앞에서 적들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였다.

그러나 워낙 악명높은 놈들인지라 정신을 차리고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전투는 더욱더 치렬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중턱 바위우에 올라서시여 싸창을 틀어쥐시고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의 곁에서 잠시도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그이의 신변안전을 지키시며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고 계시였다.

바람결에 설레이는 갈발에 시선을 돌리시는 순간 김정숙동지의 심장은 삽시에 얼어드는것만 같았다.

적들이 무성한 갈발속에 몸을 감추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계시는 산중턱을 향해 은밀히 기여들고있었던것이다.

위기일발의 순간 《사령관동지!》 하고 다급히 웨치시며 김정숙동지께서 번개같이 몸을 솟구치시더니 온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막아서시였다.

동시에 싸창을 들어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야무진 총소리와 함께 앞의 놈이 거꾸러졌다.

백두산장군들의 명중탄에 갈발으로 기여들던 적들은 옴짝도 못하고 모조리 전멸되였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신 그 위대한 공적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은것이였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신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친위전사의 위대한 한생이였다.

전광남

태풍을 이겨낸 군민대단결의 이야기

라선시피해복구를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따라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선시의 피해복구전투를 지도해주신 이야기를 전해들으며 천만군민 모두가 뜨거운 그 사랑에 가슴을 적신다.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을 운명의 피줄로 간직하고 사는 인민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이야기 그 얼마나 많고많은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과 국가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생활에 일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력량을 집중하고있으며 가까운 앞날에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운것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습니다.》

세해전 7월말 강한 태풍과 폭우로 평안남도 개천지구가 혹심한 피해를 받았을 때였다.

현지일군들은 물론 해당 부문 일군들까지도 이 지역의 큰물피해를 복구하고 렬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자면 여러달은 걸려야 할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로 그것은 전례없이 큰 피해였다.

실태를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부대에 개천—조양간 철길을 복구하고 쌓인 버력을 처리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모든 단위들에서 이번 큰물피해복구기간에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즉시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야간에 강행군을 하여 이른아침 현장에 도착하였다. 군인들은 그길로 피해복구전투에 진입하였다.

전투 첫날에 벌써 우리 군인들은 흙사태에 묻혀 형체를 알아볼수 없었던 역구내와 수십리 철길구간을 번번하게 해놓았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어 철길을 복구하기 전에는 순간도 휴식할 권리가 없다는것이 인민군군인들이 자기자신들에게 스스로 제기한 요구였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는 피해복구전투장은 결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울 기세,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군대와 인민은 산처럼 쌓인 버력을 쳐내고 철길복구 및 로반정리를 3일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큰물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에 하달하신 전투임무에는 군인들이 인민의 군대라는 높은 책임감과 자각을 가지고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주지 말데 대한 내용도 포함되여있었다.

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이 절대로 인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데 대하여 가르치신 우리 원수님,

그이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우리 군인들은 피해복구전투를 벌리는 기간 복구현장으로 가는 길목에 특별초소를 만들어놓고 원호물자를 가지고오는 인민들을 되돌려보내군 하였다.

하지만 인민들은 결사전을 벌리는 우리 군인들에게 장갑 한켤레도 전하지 못하고 시원한 물 한모금도 권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군대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군대를 위하는 감동깊은 화폭은 이곳에서만 꽃펴난 이야기가 아니였다.

자연의 광란을 길들인 군민대단결의 이야기는 하늘땅이 열백번 뒤집힌다 해도 오로지 령도자의 발걸음따라 폭우피해를 가시고 일떠선 검덕과 룡양, 대흥지구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들과 더불어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못 잊을 이야기로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일군들을 인민의 충복으로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더듬어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 뜨겁게 젖어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정치,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정치가 바로 우리 당의 인덕정치입니다.》

70성상에 걸치는 성스러운 우리 당력사는 그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위대한 사랑의 력사이다.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이다.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조였다.

주체83(1994)년 12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시하자면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일군들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 키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인민의 참다운 충복!

바로 여기에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비껴있다.

언제인가 일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인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해놓는데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기쁨은 언제나 인민의 행복속에 있다고,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살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이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일군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였다.

그 나날 우리 인민은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자랑떨치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당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의 일심단결, 이 단결의 위력이야말로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는 최후승리의 위대한 보검이다.

본사기자

중요건설대상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하리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당창건 일흔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쑥섬전역에서 50여개 건설대상들에 대한 마지막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과학기술전당과 과학자숙소, 분수공원과 과학기술상징탑, 쑥섬인입다리들이 그 자태를 확연히 드러냈다. 야외학습터들과 야외전시장, 각종 뽐프장들과 변전실을 비롯한 부속건설대상들도 완공의 날을 하루하루 가까이하고있다. 과학기술전당주변의 차도로와 다님길이 명백히 구별되고 수만㎡의 면적에 펼쳐진 바닥돌과 푸른 모습으로 형성된 록지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은 쑥섬의 면모를 한결 이채롭게 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쑥섬을 찾으신 때로부터 반년 남짓이 흘렀다.

인민대학습당의 건물규모를 릉가하는 과학기술전당 지상골조공사가 결속된것은 지난 6월초였다. 그때로부터 가슴벅차게 흘러온 지난 100여일의 나날에 쑥섬에서 창조된 기적은 또 얼마나 경이적인것인가.

과학기술전당의 방대한 건축규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자가 있다.

50만㎡, 이것은 과학기술전당의 모든 천정과 벽체, 바닥을 포함한 미장작업량이다. 과학기술전당 내외부공사를 맡은 부대장병들은 이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두달안팎에 손색없이 수행하였다. 련이은 공격전의 불길속에 과학기술전당 건물내부공사가 결속단계에 이른 현장에서는 지금 구획별에 따르는 전시작업이 한창이다.

일개 건물공사가 아니라 하나의 구획지구형성과도 맞먹는 그렇듯 방대한 공사가 최단기간에 수행된 비결은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쑥섬전역에서 흐른 시간은 조국결사수호정신으로 일관된 대격전의 분분초초였다.

위훈넘친 그 나날에 밤하늘의 별무리를 떠이고 야간전의 숨결을 높여온 전투원들은 얼마였으며 숙소까지 오가는 시간도 아까와 현장을 뜨지 않고 공사과제수행을 위해 헌신한 병사들은 또 얼마였던가.

쑥섬개발자들이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연길폭탄정신을 본받아 세차게 지펴올린 기술전, 두뇌전의 불길은 긴장한 로력과 건설기계, 공사자재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과학기술전당건설과정에 근 8만대의 발대가 절약되고 쑥섬인입다리건설과정에 1만 5천여대의 버팀목을 대용자재로 대신하는 기술혁신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결과 반년분공사량이 석달, 두달동안에 수행되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였다.

과학기술전당골조공사가 한창이던 때부터 시작된 지대정리와 원림공사도 쑥섬의 분위기를 고조시킨 또 하나의 거창한 창조적투쟁이였다.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수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록지를 조성하여 최단기간에 쑥섬의 적지 않은 구획들을 산뜻한 공원처럼 꾸려놓은 성, 중앙기관들과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

건설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을 안고 매일같이 쑥섬전역에 달려나가 공사장의 숨결에 박동을 맞추며 지대정리와 물동운반을 도맡아나선 시안의 수많은 녀맹원들과 청년동맹원들, 전국각지의 지원자들, 경제선동대원들의 소행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하게 창조적위훈을 떨치고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려는 이런 군대와 인민의 애국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과학기술전당 건설완공의 날이 다가올수록 총공격전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쑥섬을 최단기간에 과학의 섬으로 천도개벽시켜가는 영웅적창조자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지원철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청년운동사적관건설장에서

창조물에 비낀 애국충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것처럼 오늘의 력사적진군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멀고 험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속도전청년돌격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청년운동사적관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훌륭히 완공할 불타는 열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있다.

건물내부타일붙이기와 전시작업 본격적으로 추진, 총공사량의 80%계선돌파…

청년운동사적관건설을 자기들이 직접 맡아한다는 이들의 남다른 긍지는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나가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조선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될 사적관건설에 청춘의 열정과 순결한 량심을 바치자.

공사 전기간 이런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이들이다.

마감공사단계에 들어서면서 1만여㎡에 달하는 건물벽체에 석재시공을 함에 대한 과제가 제10려단에 맡겨졌을 때였다. 석재시공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맡은 작업을 제기일에 끝낸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하지만 려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백두청춘들의 투쟁본때로 일할 때 반드시 기적이 창조된다는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해당 단위의 방조밑에 짬시간을 리용하여 시공기능을 터득하고 석재색갈의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게 필요한 설비를 제작하는 사업도 벌어졌다. 이어 전투에 진입한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하나하나의 석재에 사소한 흠이라도 생길세라 합리적인 기공구를 효과있게 리용하면서 치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그 과정에 제기된 난관도 없지 않았다.

지난 장마철에 건물의 지붕공사가 시작되면서 운반통로가 막히는 등 석재시공에 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하지만 공사는 중단없이 추진되였다. 리현수, 한성산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 지붕에 안내레루를 놓는 방법을 비롯한 혁신적인 공법을 련이어 받아들였던것이다.

하나의 의지로 고동친 집단의 위력은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반년이상은 걸려야 할 석재시공작업이 석달동안에 90%이상 수행되는 놀라운 실적이 기록되였던것이다.

건설물의 질을 천년책임, 만년보증하기 위해 애써 노력한 혁신의 기수들이 어찌 제10려단의 전투원들뿐이랴.

건물내부시공과 건조를 위해 공사용조명과 송풍기도 해결해오고 천여개의 천정구조물에 대한 용접의 질검사를 위해 하루에도 수십번씩 발판을 타고 오르내린 제8려단 지휘관들인 문철주, 윤원철동무들 그리고 미장면을 일매지게 완성하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친 전투원들인 리송일, 박옥철동무들,

모든 공정수행에 앞서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시공의 전문화를 실현한 결과 려단적인 벽체미장과 인조석바닥시공을 비롯한 내부공사의 질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

실적을 론하기 전에 건설물의 질평가를 앞세우며 모든 공사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이들의 깐진 일본새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잔디심기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당이 맡겨준 중요건설대상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손색없이 완공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이곳 청년전위들의 위훈의 자욱은 당창건 일흔돐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더욱 뚜렷하게 새겨지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대동강반에 일떠서는 사랑의 새 거리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인양 대동강반에 날로 변모되는 수도 평양의 새 모습을 자랑하는 미래과학자거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불과 6개월 남짓한 기간 규모가 큰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성하여 우리 당 건설정책의 정당성, 우리 인민의 문명척도, 군민의 정신력이 어떤것인가를 만방에 과시하고있다.

목표를 세워도 남들이 상상할수 없이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도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며 단숨에 해제끼는 조선의 본때가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힘차게 발휘되고있다.

창전거리건설때보다 근 2배의 속도가 창조되여 불과 50일동안에 큰 규모의 살림집골조가 일떠서고 60여일만에는 또다시 근 300세대에 달하는 53층살림집골조가 하늘을 치받으며 솟구친것이 대동강반에 펼쳐진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는 기상으로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이 단숨에 솟구친 모습은 희한하기 이를데 없다. 청색과 감색 등 갖가지 타일로 산뜻하게 단장된 탑식과 묶음식의 초고층살림집들, 새로운 지붕형식을 자랑하는 건물의 기단층들에는 현대적인 봉사망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살림집들에는 공동살림방과 부모방, 부부방과 자식방 그리고 부엌과 위생실이 구색이 맞게 꾸려져 누구나 감탄한다.

마치도 환상의 세계를 보듯 안팎으로 손색없는 새 거리이다.

장미원을 지나 룡동영화관에 들어서면 탐험선을 타고 땅속깊이 들어가는듯 한감을 느끼고 창광상점앞에 서면 바다의 세계에 온것 같은 느낌도 받는다.

상징탑동체를 따라 전자자리길의 모양으로 타래쳐오른 초고층살림집과 현대적인 기상수문국,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앞에 서면 우주세계를 보는듯 하다.

반원형의 휴식터들과 채양지붕 및 의자들이 설치된 롱구장과 배구장, 바드민톤장을 갖춘 체육공원…

보기에도 눈부신 창조물들이 불과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솟구친 이 기적은 어떻게 창조된것인가.

시공단위들에서는 혼합물운반차와 작업승강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건설장비들을 배치하고 건설의 전문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면서 맡은 공사를 힘있게 추진하였다.

새로 제작한 혼합물공급계통을 높아지는 살림집골조우에 보란듯이 설치하고 압송뽐프에 의한 콩크리트치기를 받아들여 골조공사속도를 수배로 높인것을 비롯한 많은 새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였다.

공사과제수행에서 래일이란 없다는 관점과 자기들의 건설실적을 매일 당에 보고드린다는 자각을 안고 순간순간을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온 군인들, 건설자들과 함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닌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희한한 새 거리완공의 날은 이렇게 하루하루 앞당겨지고 있다.

천지개벽을 노래하며 대동강반에 또 하나의 선경과도 같은 새 거리가 펼쳐지는 가슴벅찬 모습을 보며 우리는 확신한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런 군대와 인민이 있어 머지않아 10월의 하늘가에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되리라는것을.

리영민

백두대지에서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울리게

삼지연군 대상건설 및 개건보수공사장에서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군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 량강도려단의 건설자들은 60여개에 달하는 대상건설 및 개건보수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총공사량의 88%계선을 넘어서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창건 일흔돐까지 모든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려는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완공의 새 소식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설비, 자재보장을 맡은 문화성, 체육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군문화회관 등 여러 대상들에 대한 개건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베개봉국수집개건공사가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되였다.

백두산지구 체육촌에 자리잡은 대성산체육단숙소, 평양철도국체육단숙소가 훌륭히 완공되였다. 대성산체육단, 평양철도국체육단의 건설자들은 백두산지구 체육촌을 찾는 체육인들이 겨울철에도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숙소를 밀림속의 휴양소처럼 멋지게 꾸려놓았다.

재정성과 식료일용공업성의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삼지연장공장에 현대적인 장철임생산공정을 새로 꾸리여 삼지연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건설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군들쭉사업소가 새로 일떠서고 군기념품공장이 개건되였다.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체육성의 건설자들은 빙상호케이경기관과 속도빙상경기장, 체육인숙소를 비롯한 10여개 대상에 대한 개건보수공사와 스키장건설을 다그쳐 총공사량의 90%를 해제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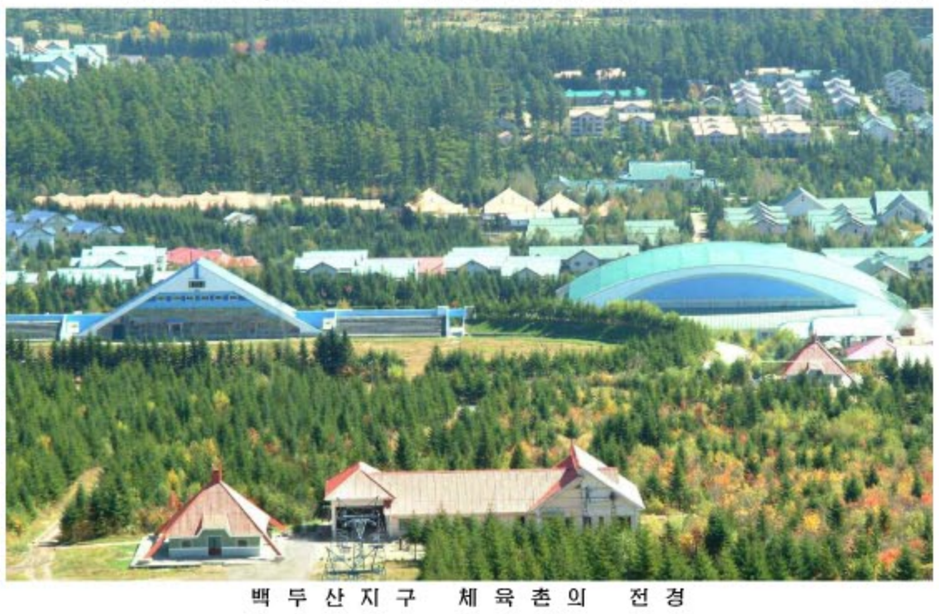
량강도려단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숙영각들과 식당들, 합숙을 비롯한 백두산기슭에 일떠서는 창조물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하여 총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삼지연군을 보다 훌륭히 꾸리려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노력에 의해 인민의 기쁨넘친 행복의 웃음소리 백두대지에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스키장의 휴계실

베개봉국수집



백두산지구 체육촌의 전경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을 주선으로

사리원닭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사리원닭공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단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리전을 잡아주시고 여러차례나 찾아주신 공장,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력력히 새겨져있는 공장의 면모는 최근시기에 몰라보게 일신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공장의 전반사업을 혁신해나가고있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

일군들이 대중의 심장마다에 불을 지펴올리는 불씨가 되는것, 이것이 초급당위원회가 첫번째로 중시한 문제이다.

공장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하고 내밀던 때의 일이 실례로 된다.

사상교양거점들을 새롭게 꾸리고 10여동의 생산건물들을 보다 훌륭히 건설하며 공장구내를 파수원화하고 빈땅들에 잔디를 심어야 할 작업량은 그야말로 방대하였다. 알과 고기생산계획만 수행하자고 해도 힘에 부친 때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부 일군들은 적은 로력으로 그 일을 꽤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앞세웠다.

하지만 초급당비서 권승남동무는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 일군들이 불씨가 됩시다. 공장을 잘 꾸리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갑시다.》

초급당위원들이 모인 어느 한 협의회에서 초급당비서가 한 말이다.

그의 호소는 일군들을 다시금 각성시켰다.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고 당의 기본구호들을 새로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초급당위원들은 저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지배인 리용남동무는 과학기술보급실과 계급교양실건설을 맡아나섰다.

성금작업반 반장인 최승철동무는 작업반의 사적호동들을, 비육직장의 당세포비서인 정명규동무는 사적호동인 병아리사개건공사를 맡아나섰다.

초급당위원들이 스스로가 맡아안은 분공!

그것은 곧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펴올리는 불씨로 되였다.

하지만 불씨가 있다고 그것이 저절로 세찬 불길로 이어질수는 없다.

송풍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이 송풍기, 가속기가 되여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것, 이것이 바로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초급당위원회가 두번째로 중시한 문제이다.

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있던 어느날이였다.

사료가공작업반의 한 종업원과 담화를 하고난 초급당비서의 마음은 무거웠다. 담화를 통하여 최근 그 종업원의 식솔이 늘어난 사실을 알았던것이다.

하지만 그 종업원은 식구들이 많아 좁은 집에서 불편을 느끼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고 오직 공장의 현대화를 위한 일에 전심하고있었다.

그 사실을 통해 생각되는것이 있어 초급당일군은 다른 종업원들속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가를 알아보았다. 알아보니 그런 가정이 여러세대나 되였다.

자책은 컸다.

그는 곧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공장의 현대화를 내밀면서 동시에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안건이 토의되였다.

개건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미처 대주지 못하고있는 때에 종업원들의 살림집을 해결해준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공장의 일군들은 아무리 품이 많이 든다고 해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관점밑에서 대담하게 작전을 펼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업원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겠는가.

눈앞의 방대한 과업보다 그것을 맡아 수행할 종업원들의 생활을 먼저 보는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일군들의 일본새는 좋은 결실을 안아왔다.

살림집을 받게 될 당사자들이 개건공사의 앞장에서 혁신자로 이름을 떨치게 된것은 물론 모든 종업원들도 너도나도 떨쳐나 한몫 단단히 한것이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지난 기간에 일을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감사를 받은 종업원들이 공장꾸리기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이에 고무된 종업원들은 더욱 분발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도 주인된 자각을 안고 공장건설에 떨쳐나섰다.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공장에서는 경제조직사업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었다.

그렇게 되니 종업원들속에서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 맡아 해제끼는 놀라운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이렇게 되여 짧은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고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이 새롭게 꾸려졌다. 또한 당의 기본구호들도 더욱 정중히 모셔지게 되였다.

사적건물들과 로동자합숙, 문화회관 등도 훌륭히 개건되였다. 15동의 생산건물의 지붕공사가 새로 진행되였으며 수만그루의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심어져 공장은 말그대로 파수원이 되고 공원처럼 되였다. 양어장과 축산기지도 꾸려져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을 통해 찾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군들이 대중발동의 불씨가 되여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에서 보다 큰 결실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특파기자 김천일

년간계획수행을 위하여 총돌격

평안북도수산관리국에서

평안북도수산관리국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수산물생산과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관리국에서는 당창건 일흔돐까지 년간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줄기찬 전투를 벌려 9월 20일현재 수산물생산계획은 90%, 물고기잡이계획은 95%이상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관리국일군들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배워 올해에도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려갈 결의를 안고 떨쳐나 모든 수산사업소들에서 배수리와 어구준비를 끝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관리국의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내려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걸린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주면서 로동자들을 배수리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관리국아래 수산사업소들에서 배수리를 전부 끝내고 지난 3월 1일부터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몽금포중심어장과 서해북부수역들에 진출하여 물고기잡이와 수산물생산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하였다.

박윤성, 량철호, 김일건동무를 비롯한 관리국의 책임일군들은 지휘선을 타고 어장에 나가 과학적이며 집중적인 어로전을 벌려나가도록 어로공들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월, 분기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수산물생산과 물고기잡이에서는 운전수산사업소가 앞서나가고있다.

지배인 최광철동무는 배수리기지를 비롯한 자력갱생기지들을 튼튼히 꾸려놓고 수산물생산과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리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사업소에서는 자체로 어장탐색프로그람을 완성하여 현실에 도입함으로써 물고기잡이의 과학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종전과는 달리 안강망선 척당 그물 두틀씩 찰수 있게 배들을 개조하여 9월말까지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정주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은 줄기찬 어로전을 벌려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은 80%, 물고기잡이계획은 108%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배인 박승근동무를 비롯한 룡암포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수산물생산과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사업소의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 선장 최금주동무와 녀성어로공들은 몽금포중심어장을 제일먼저 타고앉아 청춘의 슬기와 기개를 높이 떨치며 어로전을 힘있게 벌려 지난 6월말까지 년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철산수산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국아래 모든 수산사업소들에서도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년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목표를 내세우고 수산물생산과 물고기잡이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와 관리국당위원회 일군들은 룡암포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수산사업소들에 나가 어로공들이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수산물생산성과로 빛내이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위대한 힘을 낳는다

가요 《사랑하노라》를 들으며

그처럼 기다리던 10월의 대축전장을 눈앞에 둔 뜻깊은 올해의 9월에 또 한편의 조국에 대한 훌륭한 명곡이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가요 《사랑하노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류다른 격정과 흥분을 안고 경축한 선군절 다음날에 당보에 실렸다. 가요의 가사와 선률 한구절한구절을 깊은 사색속에 음미해보면서 사람들모두가 참으로 명곡이라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 약동하는 생기, 래일에 대한 희망과 랑만을 안겨주는 인간생활의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우리 음악사에 조국에 대한 노래는 헤아릴수없이 많다. 조국을 자신의 사랑과 운명의 전부로 여기는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이 제일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는 역시 조국에 대한 명곡이다. 가요 《사랑하노라》를 들으며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은 지금껏 례사롭게 대해오던 생활의 세부들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로 하여 솟구쳐오르는 크나큰 흥분을 안고 이 명곡을 대하고있다.

조국에 대한 한생의 아름다운 추억이나 그 어떤 상징적인 대상들보다도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도 평범하게 대하고있던 생활의 가장 소박한 세부들을 통하여 조국이라는 위대한 존재를 심장깊이 절감하게 하여주고 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뼈속깊이 새겨주는데 가요 《사랑하노라》의 독특한 사상예술적 특징이 있다.

아침저녁 아이들의 노래소리 즐거웁고
따뜻한 정 넘치여 화목한 가정
소중한 보금자리 나의 집이여
…

노래의 가사는 그대로 아담하고 세련된 한편의 서정시와도 같다. 소박하면서도 구체적인 형상으로 다듬어진 가사는 오늘의 생활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감정을 섬세한 묘사와 풍만한 정서로 구김살없이 보여주고있다.

고향집뜨락에서 한걸음 더 깊이 내짚은 《소중한 보금자리 나의 집이여》라는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시적계기로 하면서 그것을 현실감이 짙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 형상함으로써 노래는 이전에는 례사롭게 생각해오던 자신의 가정과 집에 대한 각별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가정에 대한 사랑, 일터에 대한 애착의 감정은 어느 사회,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러나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은 같지 않다. 인간의 따뜻한 정도, 가정과 일터에 대한 순결한 사랑과 고상한 애착심, 사람들사이의 화목도 돈이나 물질적재부에 의하여 론의되고 유린당하는 사회에서 가정과 일터에 대한 참된 사랑의 노래를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활을 조국과 결부시킨 훌륭한 애국의 명곡이 태여날수 있을것인가.

하지만 우리 인민이 부르는 《사랑하노라》와 같은 행복의 찬가, 조국애의 노래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있는가.

《아침저녁 아이들의 노래소리 즐거웁고 따뜻한 정 넘치여 화목한 가정》, 《래일위해 바치는 땀 열매되여 무르익고 솟구치는 열정은 기적을 낳네》…

무심히 대할수 없는 구절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마다 새해의 첫날 아침이면 사랑을 담아, 진정을 담아 만복이 깃들기를 축복해주신 가정, 우리 원수님께서 기적과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신 창조의 세계를 명곡은 나의 집이고 나의 일터라고 정담아 부르고있다.

부족한것도 있고 어려운것도 적지 않지만 우리 인민은 자기의 생활을 사랑한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어려울수록 사람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더 아름다운 래일을 위하여 뜻도 정도 합쳐 소중히 가꾸어가는 오늘의 생활인것이다.

이렇듯 행복스럽고 평온한 생활의 만족과 즐거움이 과연 어떻게 오는것인가.

이 세상 그 어느 사회에서도 흉내낼수도 만들어낼수도 없는 우리의 생활을 꽃피워주고 지켜주는 품이 바로 우리 당의 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임을 우리 인민은 오늘날 자기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사무치게 절감하고있다.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고 인민을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원수님의 손길아래 궁궐같이 일떠서는 인민의 락원들은 얼마나 많은가. 위대한 인민사랑의 숭고한 서사시를 수놓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을 위한 궁궐같은 새 집들이 앞을 다투어 솟아나고 그 어디에서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리는것이 내 조국의 모습이고 기적과 창조의 풍성한 열매들이 만년대계의 재부로 이어지는것이 오늘 내 나라의 현실인것이다. 하기에 가요는 조국은 바로 소중한 보금자리 나의 집이고 창조로 보람넘친 나의 일터라고 사랑을 담아 노래하였던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노래는 2절과 3절에서 조국의 세계를 감정의 론리, 생활의 론리에 따라 하나둘 차례차례 폭을 넓혀나가다가 마침내 4절에서 조국에 대한 사상감정의 정수를 터친다.

…
은혜로운 해빛 넘쳐 눈부시게 밝은 나라
그 미래도 찬란한 태양의 나라
위대한 나의 조국 사랑하노라

우리 인민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면서 조국에 대한 노래를 지어부를 때마다 한목소리로 외우군 하는 사상감정, 우리의 생활이 왜 변함없이 행복하고 평온하며 우리의 조국이 어이하여 날이 갈수록 그토록 강하고 위대해지는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모두가 스스로 뼈에 새기는 그 위대한 철리를 가요 《사랑하노라》는 생활의 진리로 다시금 론증해주고있다.

지난 기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조국이란 무엇이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의의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것을 조국을 상징할수 있는 여러 대상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감정정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상미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함으로써 수많은 훌륭한 명작들을 창작하였으며 그 과정에 조국과 애국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창작의 귀중한 경험들과 본보기도 적지 않게 마련하였다. 최근년간에도 사람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애국가》라고 찬탄해마지 않는 《조국찬가》와 같이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과 위력을 격찬하고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격조높이 구가한 새시대의 걸작들이 창작되였다.

이룩된 창작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가요 《사랑하노라》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직접 누리고있는 보다 구체적인 생활과 현실속에서 조국에 대한 진실한 형상을 소박한 서정가요형식에 담아 보다 친근하게 밝혀냄으로써 조국과 우리 생활이라는 훌륭한 음악세계를 창조할수 있었다.

가요 《사랑하노라》는 위대한 조국의 품을 열렬히 사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감정을 시대의 요구에 맞는 특색있는 선률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당의 문예방침을 높은 경지에서 구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조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인민의 사상감정을 밝고 생활적이면서도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음악창작방침이다.

음악에서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가지는 선률은 사람들의 생활감정을 얼마나 진실하게 반영하고 새로운 정서적색갈을 창조하였는가 하는데 그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 서정적인 가요라고 하더라도 노래가 반영한 대상에 따라 그 서정은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조국에 대한 노래인 경우에도 그 정서적색갈은 서로 다른것이다.

이 노래의 선률에서 고유하게 느껴지는 음악정서는 진하고진한, 그러면서도 끝없이 흘러나오는 깊은 서정성이다.

마치 석양빛 붉게 물든 잔잔한 물결의 형상을 련상케 하면서 은은하게 시작된 선률이 점차적으로 고조되며 보다 절절하고 폭넓게 승화되는 가요의 음악정서는 참으로 특색있다. 노래의 은은한 선률에 맞추어 가사의 구절들을 새기며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있는 행복한 생활의 순간순간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은혜로운 해빛속에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을 그려보기도 하며 천지개벽으로 눈부신 조국땅의 전변을 벅차게 안아보기도 한다. 또한 이 노래를 부르면 깊은 서정의 세계에 저도 모르게 잠겨들면서 위대한 조국의 아들딸된 크나큰 긍지로 가슴부풀어 오른다.

노래의 선률이 보여준 은은하고 사색적인 양상으로부터 절절하고 지향적인 서정에로의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찬란한 래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랑만에 대한 진실한 체험속에서 우러나오는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된다.

노래는 소박하고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대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형상하여 조국에 대한 표상과 사랑의 격정을 보다 진실하고 현실감있게 승화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가정, 자기들의 일터,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을 사랑하는 진실한 감정이 곧 위대한 애국임을 가슴뭉클하게 절감하게 하여주고있다. 소박한 예술형식에 담겨진 위대한 조국의 모습과 절절하고 진정넘친 전인민적감정, 바로 이것이 가요 《사랑하노라》가 거둔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가요 《사랑하노라》는 청봉악단의 성색융합의 독특한 안삼블과 녀성가수들의 세련되고 개성적인 성악연주로 훌륭히 형상된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끝없이 흥분시키고있다. 풍부한 화성에 기초한 다양한 성악성부들이 하나로 어울리면서 아름다운 노래선률을 두드러지게 살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뚜렷한 형상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청봉악단 예술인들의 황홀한 음악형상세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란봉악단과 함께 또 하나의 희한한 새시대 예술인선구자집단을 가지게 된 긍지를 가슴뿌듯이 간직하게 하고있다.

이 노래는 지난 8월 26일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성되였던 위험천만한 사태가 평정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류다른 격정을 안고 선군절을 경축한 다음날 당보에 실렸다.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낸 우리의 진정한 힘, 강대한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불타고있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였음을 한편의 서정가요가 대변해주었다.

뜨거운 조국애, 이 고결한 사상감정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제오늘에 받아안은것이 아니였다. 숭고한 이 넋은 이 나라 인민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장구한 투쟁의 나날에 새긴 신념의 기둥이였고 귀중한 정신적재부였다.

민족의 머리우에 짙게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국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낸 력사의 언덕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터친 가요 《사랑하노라》는 조국에 대한 이 땅의 수천만 애국자들의 진정넘친 사랑의 고백이였고 그 순결하고 열렬한 애국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내 조국의 진정한 힘의 분출이였다.

그렇다. 조국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열렬한 사랑의 목소리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화목한 가정과 소중한 자기 일터를 더없이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참된 인간들의 심장속에서만 울려나올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며 빛내여가는 조국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고귀한 진리를 가요 《사랑하노라》는 가장 평범한 우리의 생활로,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감정으로 다시금 증명해주었다.

투쟁과 생활의 본질, 인민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훌륭한 서정가요는 시대를 떠미는 거대한 감화력을 발휘한다.

가요 《사랑하노라》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준 충격은 참으로 크다.

이 노래는 위대하고 격동적인 시대에 한편의 노래가 얼마나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가요 《사랑하노라》는 고요하고 아늑한 창가에서 사랑과 행복에 대한 명상에 잠긴 서정적주인공의 노래로가 아니라 들끓는 격동적인 현실속에서 전인민적합창으로 힘차게 울려퍼지였다.

지난 1950년대의 조국수호자들은 《문경고개》와 《전호속의 나의 노래》, 《내 고향의 정든 집》과 같은 노래들을 부르며 원쑤들을 쳐부시고 위대한 승리를 안아왔다. 세상을 놀래운 기적과 위훈의 밑바탕에는 이렇듯 훌륭한 명곡들의 서정이 용암처럼 흐르고있다.

오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요 《사랑하노라》와 같은 노래들을 심장으로 터치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또다시 이 땅에 준엄한 시각이 닥쳐온다면 우리 병사들과 청년들, 인민들 누구나 자기가 지켜야 할 조국이 무엇인가를 심장깊이, 뼈속깊이 새겨주는 이 명곡을 부르며 전선행렬차에 용약 오를것이다.

이처럼 조용하고 유순한 서정가요의 선률보다 더 무서운 강렬한 정서의 분출로 승화되여 천만의 심금을 울리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는것을 가요 《사랑하노라》는 다시금 실증해주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이 단순히 자기의 가정과 일터만이 아니라 위대한 내 조국의 상징과도 같은 국화와 국조, 국수를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람홍색공화국기발을 그려보며 크나큰 힘의 용솟음을 느끼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는것은 가요 《사랑하노라》처럼 우리의 진정한 힘을 가슴뿌듯이 느끼고 시대의 맥박을 간직할수 있게 하는 명작들이며 부르면 부를수록, 보면 볼수록 조국과 시대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크나큰 승리의 신심, 투지와 열정을 지닐수 있게 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이다.

인민들스스로가 자기의 노래, 자기의 생활로 받아들이는 예술작품은 시대의 명작으로 빛을 뿌린다.

천고의 밀림속에서 혁명가요들과 같은 영원한 투쟁의 메아리를 탄생케 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나날 전선으로 달리는 렬차에서, 불타는 전호가에서 애국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창작한 전세대 창작가들처럼 자기 시대, 자기의 생활을 더없이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내댈 열망으로 충만된 예술가의 심장에서는 명작이 나오기마련이다.

한편의 작품을 내놓아도 혁명에 이바지하는 만점짜리 명작을 내놓고 한차례 공연을 하여도 온 세상을 들었다놓을줄 아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전투적인 예술창조활동은 훌륭한 명작, 성공한 공연은 예술가의 재능에서가 아니라 조국과 시대, 생활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에서 창조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한편의 예술작품을 창작하여도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와 같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는 작품, 《조국찬가》, 《사랑하노라》처럼 **김정일**애국주의의 숭고한 세계를 새길수 있게 하는 작품들을 내놓음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활동으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투쟁은 훌륭한 명곡을 낳고 시대의 명작은 군대와 인민을 격려하는 내 조국의 모습.

가요 《사랑하노라》와 같은 열렬한 사랑의 노래, 뜨거운 애국의 찬가들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우리 조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높이 솟아오를것이다.

우 정 혁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0일 영국레이버당출신 국회 상원의원과 일행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공적과 위인적풍모로 하여 세계정치의 원로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0일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사령부의 붉은 선전원, 선동원으로

신천박물관의 일군들과 강사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7월 신천박물관을 찾으시여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가는 우리 당의 핵심, 직업적인 혁명가, 최고사령부의 붉은 선전원, 선동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반미대결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바로 그 믿음이 신천박물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을 새 인간들로 태여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일군들은 한사람한사람이 다 원쑤들이 한개 사단이나 군단무력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여야 합니다.》

언제나 최고사령부와 숨결을 같이해나갈 비상한 각오가 이곳 일군들과 강사들의 심장을 끓게 하고있다.

얼마전에 있은 일이였다.

밤이 깊어 박물관을 나서려던 관장 박영숙동무는 불이 켜져있는 어느 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문을 열어보니 신입강사인 김정심동무가 강의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열중하고있었다. 박영숙동무의 마음은 뜨거워났다. 자기의 손을 잡으며 진정을 터치는 김정심동무의 목소리는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 시각에도 우리의 최고사령부는 전선길에 있지 않는가고, 최고사령부의 붉은 선전원, 선동원으로 불러주신 우리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되여 그들은 그날 또 한 밤을 지새웠다.

달라진 일과를 통해서도 그들의 투쟁기풍이 얼마나 전투적인가를 잘 알수 있다.

군의 새벽문을 남먼저 여는 주인공들도 그들이고 강의를 하나의 전투로 여기고 강의를 쉬임없이 보장하는 열정의 인간들도 그들이다.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또 다른 학습전투에 들어간다.

하기에 그들이 언제 잠자리에 들고 깨여나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말은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반미대결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박물관의 학술연구자료들을 더욱 풍부히 하고있는 그들, 참관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자료들과 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승냥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만행을 당한 체험자들과 그 자녀들을 찾아 수십리 밤길도 주저없이 나서군 한 그들.

말그대로 그들은 낮과 밤을 불태우며 최고사령부와 숨결도 발걸음도 하나로 맞추고있다.

최고사령부의 붉은 선전원, 선동원으로!

이것이 바로 이곳 일군들과 강사들의 삶의 목표이고 불같은 실천이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웰남, 라오스를 방문하였던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귀국

【평양 9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웰남, 라오스를 방문하였던 김동선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이 20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마중하였다.

백두청춘들이 부르는 신념의 노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기동예술선동대공연 성황리에 진행

【평양 9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기동예술선동대공연이 18일부터 20일까지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선혁명의 성지 백두대지에 자랑스러운 청춘언제를 우뚝 일떠세운 청년돌격대원들의 공연을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관람하였다.

설화와 합창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3인시 《사랑과 위훈》, 혼성2중창 《금방석》, 하모니카와 북제창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혁명을 같이 할 젊은 주력부대로 내세워주시며 부강조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폭풍쳐 나아가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친솔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가 창조될수 있었음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영광의 10월에 백두의 불야경을 기어이 펼쳐놓을 결사관철의 의지안고 애국충정의 강행군전투를 벌려온 돌격대원들의 자랑찬 투쟁모습을 반영한 손풍금3병창 《우리의 래일이 말해줄거야》, 극이야기 《백두청춘대학성적증》이 련이어 무대에 펼쳐졌다.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관람자들은 청년강국의 주인들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청년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이 땅에 약동하는 젊음이 넘쳐나는 청년강국의 새시대가 줄기차게 흐르고있음을 뜨겁게 절감하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전투적기백과 랑만으로 충만된 기타5병창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하모니카와 북제창 《밀림속의 승전가》와 같은 곡목들로 하여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시와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로 끝난 공연은 투쟁의 앞길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오직 한마음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없이 그리고 따르며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난을 과감히 뚫고나갈 때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적신화의 창조자로 될수 있다는 철리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준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일군들과 청년학생들은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는 결사관철의 투사들, 정신력의 강자들만이 펼칠수 있는 공연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처럼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학교의 영예는 어떻게 빛나는가

신의주시 백사고급중학교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우수한 몇명의 교원들을 내세워 경연마다에서 우승하면 학교가 순간의 《빛》을 볼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를 바라고 모든 교원들을 실력가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소홀히 대한다면 교육사업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신의주시 백사고급중학교의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해동안 꾸준히 실력향상의 불길을 지펴 자랑할만 한 성과들을 련이어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이곳 학교에는 거의 모든 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등록증과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소유자들이고 1급교원만 해도 10여명이나 된다. 또 학생들속에서는 해마다 수십명의 7.15최우등상수상자가 배출되고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입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누구나 쉽게 달성할수 없는 높은 목표이다.

지난 시기 이곳 학교에서는 실력이 높은 몇몇 교원들에게 학업성적이 뛰여난 학생들을 맡겨 과외학습지도를 하게 하였다. 목적은 그렇게 하여 여러 경연들에 참가시켜 우승하게 하거나 상급학교입학률을 높여 학교의 명예를 얻자는것이였다. 이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수교양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되자 일부 학부형들속에서 자기 자식을 실력이 높은 교원에게서 배우게 해달라고 제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러해전에 교장으로 임명되여 이런 학교실태를 료해한 백창렬동무는 인츰 학과경연을 조직하였다. 결과 실력이 높은 교원들에게서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성적은 높았지만 전반적인 학생들의 성적은 높지 못하였다. 교원들의 실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학교의 교육사업을 추켜세울수 없었다.

성적총화를 위한 교원모임에서 교장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원들이 먼저 혁명가가 되여야 혁명인재들을 키울수 있다고 얼마나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는가. 그런데 실력이 높은 교원들을 따라앞설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맥을 놓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라도 분발해서 모두가 실력경쟁마당에 뛰여들자. …

이날 교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많이 알아야 지도사업을 옳바로 할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일군들부터가 실력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교수경연이 진행되면 빠짐없이 참가하여 깊이 연구하였고 수많은 교육부문 도서들과 참고서들, 지어 신문들에 게재된 경험기사들도 열심히 탐독하였다.

또한 교육사업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교육단위들을 수많이 찾아다니며 좋은 점을 허심하게 배우기도 하고 학교실정에 맞게 교육사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사색과 탐구도 끊임없이 진행해나갔다.

학교일군들의 이신작칙은 교원들의 경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모두가 밤이 깊도록 교재를 환히 꿰들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였고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린접과목들까지 파고들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해나갔다.

학교일군들은 교원들의 자질문제가 점차 해결되여가는데 따라 학생들의 실력을 올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였다.

우선 교수참관을 자주 진행하여 매 교원들에게 알맞는 교수지도를 하였다. 교원들이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면 다지기단계를 놓치거나 인식정형을 료해하지 못하고 수업을 끝마치는 현상이 나타나군 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군들은 매 교재의 특성에 맞게 시간을 따져보면서 교수안을 잘 쓰게 하는 한편 분과토론회와 보여주기수업을 통하여 교수준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였다. 결과 교수밀도가 높아지고 교수의 질이 개선되였다.

또한 학교일군들은 학생들에게 그날 배운 새 지식을 완전히 소화시키기 위해 교원들이 과외학습지도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학급담임을 기본으로 하는 과외학습지도가 과목교원들을 위주로 하는 과외학습지도로 전환되였고 매일 과외학습시간표에 따라 과목교원들이 교실들에 들어가 학생들이 리해 못한 문제들을 문답의 방법으로 깨우쳐주었다. 이렇게 수업과 과외학습지도를 옳게 배합하여 밀고나가니 학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

특히 학교에서는 오후과외학습지도가 끝난 후 11개의 소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다.

콤퓨터소조, 수학소조, 물리소조, 문학소조를 비롯한 수많은 소조들에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맞게 모든 학생들이 다 망라되여 마음껏 배우고있어 학부형들과 학생들모두가 좋아한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제는 학교가 시가 자랑하는 본보기학교로, 학부형들이 관심하는 실력있는 학교로 진짜명예를 얻었다.

교장 백창렬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모든 교원들이 당에서 바라는대로 높은 실력을 갖춘 집단으로 준비되였을 때 학교의 영예가 빛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학생들이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가 되고 나라의 역군이 될 포부와 희망을 안고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가도록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야 할 우리 교육자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자

체육열풍으로 미래를 앞당기는 혁명적기상

청진시 포항구역에서

온 나라에 체육중시기풍이 서고 체육열기가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속에 청진시 포항구역에서도 드세찬 체육열풍으로 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은 국력을 강화하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온 사회에 혁명적기상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년간 포항구역의 체육사업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많이 이룩되였다.

지난해 제51차 전국청소년체육학교 체육경기대회에서 포항구역청소년체육학교 학생들이 우승컵 3개, 금메달 9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7개를 쟁취한데 이어 올해의 제52차 전국청소년체육학교 체육경기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송구남자청소년반경기와 사격의 여러 세부종목경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또다시 1등을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이 학교 학생들은 최근년간 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컵과 금, 은, 동메달들을 수여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아니라 제40차, 제41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국방체육경기에서 포항구역 북향초급중학교 학생들이 종합 1위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올해에 시적으로 진행된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의 국방체육경기에서 포항구역이 종합 1등을 하는 자랑도 꽃펴났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청소년체육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구역책임일군들이 앞장서고 구역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후원단체들이 적극 발동된 가운데 청소년체육학교의 육체훈련장이 꾸려지고 여러종에 수백점에 달하는 일반육체훈련기재, 보조훈련기재 등이 갖추어져 도적으로 제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10여대의 콤퓨터를 비롯하여 전자저울, 투영기, 전자혈압맥박측정기, TV, 발동발전기 등이 마련되여 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체육과학기술정보사업을 강화하고 선수후비육성사업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서 부단히 개선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이렇듯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체육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갈 재능있는 선수후비들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한 앞날의 주인공들로 더욱 알심있게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도 좋다.

더욱 주목되는것은 당의 의도대로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온 구역안에 청춘의 기백과 혁명적기상이 차넘치게 하고 그 기백, 그 기상으로 더욱 밝은 래일을 앞당겨가는 이곳 일군들의 전투적인 일본새이다.

올해의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시적으로 진행된 녀맹원들과 일군들의 체육경기대회를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구역일군들은 이 경기대회보장을 단순한 체육사업으로 보지 않았다. 포항구역에는 녀맹원들이 많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기대회의 성과적보장을 통하여 녀맹원들의 체육열의와 사기를 부쩍 높여준다면 온 구역이 더욱 부글부글 끓게 할수 있었다.

사업이 드바쁜 속에서도 구역안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경기대회보장을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특히 구역당책임일군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체육경기에서 이기자면 기술도 좋아야 하지만 기본은 정신력발동이고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해나가게 하는것이다.

구역당책임일군은 녀맹원들의 정신력발동에 첫째가는 힘을 돌렸다.

우리 구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신 뜻깊은 고장이다. 그러니 다른 모든 사업에서도 그러하지만 체육에서도 앞장서야 한다.

격식없이 벌어진 화선식정치사업은 녀맹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구역일군들이 한종목씩 맡아가지고 내려가 녀맹조직들을 발동하면서 그 준비사업을 혁신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발목묶고달리기에서 구역선수들이 우승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도 내놓으며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구역당책임일군의 이신작칙은 녀맹원들의 체육열의를 부쩍 높여주었으며 경기대회준비를 보다 빈틈없이 갖출수 있게 하는 밑거름으로 되였다.

이렇듯 여느때없이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3.8국제부녀절날에 진행된 경기대회에서 구역녀맹원들과 일군들은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면서 발목묶고달리기에서 1등을 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종목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여 단연 종합 1위의 영예를 지니는 훌륭한 성과를 안아올렸다.

온 구역이 기쁨에 흥성이였고 사기는 대단하였다. 구역에서는 이 기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광범한 대중을 나무심기전투에 적극 불러일으켜 제기일에 와닥닥 끝냈을뿐아니라 심은 나무의 사름률도 높이는 성과를 창조하였다.

구역안의 살림집건설, 도로건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녀맹원들까지 체육에서 1등을 했는데 못해낼 일이 없다.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손으로 구역의 더 좋을 래일을 앞당겨나가자.

누구나가 욱욱하며 달라붙어 맡은 일을 걸싸게 해나갔다. 지난 시기 엄두도 내지 못하던 콩크리트도로포장공사도 단숨에 밀고나갔다.

지난 5.1절에 미래원건설장에서는 층막콩크리트치기경기라는 류다른 경기까지 벌어져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정책의 생활력은 이렇게 크다.

어디서나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여야 광범한 대중이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건강한 몸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고 사회주의생활의 랑만을 더 활짝 꽃피우게 할수 있다.

체육으로 흥하고 드세찬 체육열풍속에 혁명적기상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는 내 조국의 자랑찬 숨결에 발맞추어나가는 포항구역의 래일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벅찰것인가.

본사기자 오철룡

취재를 뒤로 미루게 된 사연

함흥시 흥덕구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얼마전 취재길로 함흥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에 들렸을 때였다.

우리와 만난 공장일군은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취재를 좀 미루는것이 어떻습니까.》

사연인즉 인차 구역적인 체육경기가 있다는것이였다. 그 말이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여 우리는 그와 함께 경기장으로 갔다.

경기장은 얼핏 둘러보아도 수만명에 달하는듯 한 많은 관중으로 꽉 차있었다.

정말 볼수록 장판이였다. 여러 단위들에서 집단체조의 배경대를 방불케 하는 응원장면을 펼치며 기세를 돋구고있었다.

열띤 응원속에 경기장에서는 축구, 롱구, 배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가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었다.

드세찬 체육열풍으로 충만된 경기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함흥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의 일군은 이날의 여러 종목체육경기들이 구역안의 보건부문, 교육부문, 농업부문, 지방산업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갈라 며칠전부터 벌려온 련맹전의 마지막경기들이라고 하면서 매 부문책임자들은 구역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이라고 하였다.

구역적인 체육경기가 이렇게 큰 규모에서 진행되게 된 사연 또한 놀라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접한 후 구역당책임일군은 올해에 진행할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경기장건설을 발기해나섰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체육열풍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구역이 내세운 모든 목표들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달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

경기장을 번듯하게 건설해놓고 여기에서 종합적인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한다면 구역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체육열풍이 더 세차게 일어날것은 명백하였다. 이것은 백마디의 선동연설보다 더 큰 감화력을 나타낼수 있었다.

그리하여 봄철부터 경기장건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구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의 종업원들과 동주민들이 경기장건설에 떨쳐나섰다. 누구나가 자기 구역에도 훌륭한 경기장이 일떠선다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갔다. 결과 1단계공사를 짧은 기간에 다 그쳐 끝낼수 있었다. 이 나날에 대중의 정신력은 더욱 높아졌다.

큰 규모의 건설을 해제끼면서 누구나 이제는 그 어떤 창조물도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울수 있다는 신심도 생겨났다.

이것을 계기로 세멘트, 벽돌생산기지건설, 거리와 마을을 꾸리는 사업 등 모든 면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이와 함께 대중의 체육열의도 나날이 높아갔다.

이야기를 끝낸 함흥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의 일군은 자기도 선수라며 운동복을 갈아입고 경기장으로 달려나가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우리는 공장에 대한 취재를 체육경기가 끝난 후에야 하게 되였다. 하지만 소득은 더 컸다. 공장에서 생산이 잘되고있는 성과의 비결의 하나가 무엇인지 생동한 현실속에서 절감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온 구역안에 세차게 일으켜가는 체육열풍이 이 공장 종업원들속에서도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북돋아주고 나아가서 증산의 동음을 더욱 높이 울려가게 하는 또 하나의 추동력으로 되고있었다.

주령봉

롱구강팀은 이렇게 자라났다

평원군 대정농장에서

제11차 전국농업근로자롱구경기에서 우승, 시, 군대항 롱구경기에서도 1등…

이것이 도적인 강팀으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실력있는 팀으로 알려져있는 평원군 대정농장의 남자롱구팀이 올해에 거둔 자랑찬 경기성과이다. 하다면 크지 않은 농장에서 어떻게 롱구강팀이 자라나게 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하여서는 학교에서뿐아니라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도 체육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곳 일군인 리학철동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롱구강팀을 가진 농장의 남다른 자랑이 생겨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근 2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에 일으켜주신 롱구바람이 이 고장도 세차게 끓게 하였다. 그때 평원군 대정리에 있는 학교에서도 은정어린 롱구공을 받아안게 되였다. 이에 토대하여 학교에서는 롱구소조운영을 잘 짜고드는 한편 학생들모두가 롱구를 즐겨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농장의 일군들은 당의 뜻을 받들어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부터 롱구열풍을 일으키는것을 농장의 대중체육사업을 끊임없이 활성화할수 있는 방도로 틀어쥐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사업이 바쁜 속에서도 롱구소조운영을 비롯한 학교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이 나날에 학생들속에서는 누구나가 롱구를 생활화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기술수준도 몰라보게 높아졌다. 뿐만아니라 많은 졸업생들이 조국보위초소와 대학 등에 가서 군사복무와 학습을 잘하면서 롱구를 비롯한 대중체육경기들에도 적극 참가하여 고향과 모교의 명예를 떨치군 하였다. 더우기 좋은것은 군사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을 비롯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졸업생들이 농장의 대중체육사업발전에서 한몫 단단히 한것이였다.

리학철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여러해동안 품들여 마련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중의 체육열의, 롱구열의를 끊임없이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들었다. 명절날, 휴식일 등을 리용하여 롱구, 배구경기를 비롯한 농장적인 체육경기들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또한 새 세대 근로자들의 경쟁열의를 더욱 분출시키기 위한 특색있는 방법론도 탐구도입하여 그들의 롱구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하여 누구나가 맡겨진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짬시간도 아끼가며 롱구훈련을 맹렬히 진행하여 자기의 기술수준을 높여나가는 열정적인 모습들이 날마다 펼쳐지게 되였다.

농장일군들은 대중체육활동에서 모범을 보이는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면서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처럼 고난의 시기 온 나라에 롱구바람을 일으키시며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북돋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은 보람이 있어 농장에 드높은 체육열의, 약동하는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올해와 같이 전국적인 경기 등에서 보란듯이 우승의 영예를 떨친 롱구강팀도 생겨나게 되였다.

모범체육농장의 영예를 지니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이곳 농장에서는 오늘도 롱구강팀을 가지고있는 자랑을 계속 꽃피우며 더욱 환희로운 래일을 열어나갈 신심넘친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본사기자

남, 녀우승팀이 배출되기까지

옹진군 도원고급중학교에서

얼마전에 진행된 도적인 고급중학교부류 축구경기에서 옹진군 도원고급중학교의 남, 녀선수들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그만큼 축구는 이 학교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들에서 체육사업을 강화하여야 학생들을 건장한 체력을 지닌 미래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훌륭한 체육선수후비들을 많이 키워낼수 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교장 리길복동무는 말하였다. 학교의 축구성과는 학부형들과 학교후원사업을 맡아하고있는 옹진광산 일군들의 성의있는 노력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학교의 축구경기성과를 론할 때 학생들의 훈련지도와 경기지휘를 맡은 체육교원의 역할 또는 학생들의 기초기술발전수준, 경기열의 등을 먼저 생각하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다면 교장은 왜서 학부형들과 후원단체일군들의 노력을 먼저 꼽았는가.

리길복동무가 교장사업을 맡아보기 시작한 근 10년전까지만 해도 학교학생들의 축구실력은 지금같지 않았다. 축구훈련지도를 맡아할 실력을 가진 체육교원이 없는것도 문제였지만 더우기 문제로 된것은 일부 학부형들속에서 자식들의 공부에만 신경을 쓰면서 체육활동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돌리지 않는것이였다.

교장을 비롯한 학교일군들은 학생들속에서 축구열의를 높이는것을 단순한 실무적문제로가 아니라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역군으로 키울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았다.

이로부터 이곳 일군들은 학생들의 축구기초기술훈련지도를 원만히 맡아수행할수 있는 교원력량을 꾸리는 사업과 함께 자녀들의 체육열의를 높이는데 학부형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학교에서 빈틈없는 준비를 갖춘데 기초하여 조직한 학부형회의의 실효는 매우 컸다. 회의를 통하여 여러 학부형들이 자기들의 낡은 견해와 관점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았으며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학교체육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너도나도 자기 자식들을 축구훈련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제기하였다. 또 어떤 학부형들은 축구훈련이 더 잘될수 있게 후방사업을 도맡아하겠다고 하면서 창발적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학부형들의 이런 드높은 열의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겠는가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학교일군들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축구훈련조건을 원만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한편으로는 축구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는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학교학생들의 축구기초기술수준과 학과실력이 나날이 높아가자 학부형들의 기쁨은 더욱 커졌다.

학교일군들은 후원단체인 옹진광산의 책임일군들과의 사업도 잘 짜고들어 학교체육사업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갔다. 광산일군들은 학교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교육사업뿐아니라 체육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도와나섰다. 축구공, 운동복들과 식료품, 경기를 하러 갈 때 타고 갈 뻐스문제에 이르기까지 학교학생들의 축구훈련과 경기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여기에 많은 품을 넣었다.

결과 이 학교의 남자축구선수들은 그해에 진행된 전국적 축구경기에서 예상을 뒤집고 3등을, 다음해부터는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게 되였다. 몇해후부터 녀자축구선수들까지도 당당한 우승을 쟁취하게 되여 오늘은 도적인 남, 녀강팀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학교에서 근 10년동안 체육사업에 큰 힘을 넣는 과정에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축구기초기술을 알심있게 련마한 많은 졸업생들이 체육단선수로도 활약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배움의 열정을 더욱 분출시켰으며 조국보위초소에서 군사복무도 잘하여 모교의 자랑을 끝없이 꽃피웠다.

학교체육사업 역시 중요한 당정책관철사업이다.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가고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볼 때 새 세대들을 앞날의 역군으로 더욱 튼튼히 키우기 위해 머리를 쓰고 학부형들과의 사업, 후원단체와의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학생들의 체육열의를 부쩍 높여가고있는 이 학교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주목할만 한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혁철

자기 단위 농사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물절약형농법도입에서 성과를 거둔 박천군의 논벼포전들을 돌아보고

올해에 례년에 없는 가물이 든 우리의 농촌들에서는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논벼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해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물절약형농법을 받아들이였다.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단위들중에는 박천군의 농장들도 있다.

우리는 이 농장들의 논벼포전들을 돌아보면서 일군들이 자기 군의 한해농사를 당과 국가앞에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1월초 올해농사대책을 토의하던 군일군들은 관수하기 어려운 포전들의 품종배치문제를 놓고 고심하였다. 물절약형농법도입에서 중요한것이 품종배치라고 보았기때문이였다.

물론 물절약형농법으로 여러가지 재배방법과 기술, 토양관리, 관수방법 등을 도입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포전들에 물을 어느 정도 대줄수 있는 조건에서만 받아들일수 있는 물절약형농법이였다.

만일 우물과 굴포까지 말라 물을 댈수 없는 조건에 부닥친다면 이런 방법들이 은을 낼수 없을것이였다. 자연조건이 불리하다고 과학적인 타산이 없이 논에 밭작물을 심을수도 없었다.

사실 저수지들의 물이 말라 군적으로 물을 대기 힘든 논면적은 1천여정보가 넘었다. 대체로 중간지대 농장들의 포전들이였는데 우물과 굴포를 판다고 해도 왕가물이 지속되면 논에 물을 댈수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실리있는 좋은 방법은 가물견딜성이 센 논벼품종을 배치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파악이 별로 없었다.

알고있다는것은 최근년간 많이 재배하고있는 어느 한 다수확품종이 가물견딜성이 약하다는 다른 도의 교훈뿐이였다. 때문에 일부 일군들은 이 품종은 밀어놓고 다른 품종들에 대해서 론의하려고 하였다.

그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이 품종배치를 주장하였다. 그들이 내댄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지난해 모내기철이였다. 덕삼협동농장의 일부 포전에 낸 벼모가 물부족으로 시들어버리게 되자 경영위원회에서는 다른 단위에서 남은 벼모를 가져다 다시 내게 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벼모의 품종들은 여러가지였다.

일군들은 이 포전들에 품종별로 모를 내게 하였다. 정상적으로 물을 대주지 못하는 경우를 예견하여 대비시험을 해보기 위해서였다.

결국 품종별가물견딜성을 시험하는 포전이 생기게 되였다. 경영위원회기사장 최광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농장일군들과 함께 이 포전에 자주 나와 품종별생육상태를 관찰하였다. 이상기후현상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가물이 들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때문이였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었다. 경영위원회 기사장이 농장관리위원장사업을 할 때 어느 한 품종이 가물견딜성이 세다는것을 포착하였었다. 하지만 과학적인 자료를 쥐지 못하여 아쉬웠는데 그 문제를 해명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것이였다.

지난해의 품종별시험결과는 일군들의 예측과 빗나가지 않았다.

논에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하였지만 어느 한 품종만은 피해를 입지 않고 아지들을 쳤던것이다. 원인을 알기 위해 뿌리를 뽑자니 안깐힘을 써야 하였으며 뿌리들은 하나같이 길었고 개수도 많았다.

하지만 다른 품종들은 그 반대였다. 뿌리가 쉽게 뽑히였고 길이도 짧고 개수도 적었던것이다. 가을에 가서는 정보당 수확고 역시 다른 품종들보다 훨씬 높았다.

시기별생육조사와 수확고자료는 이 품종이 다른 품종들보다 가물에 견디는 힘이 세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해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벌방에서 많이 재배하고있는 다수확품종이였다.

그러자 이런 물음이 제기되였다. 다른 도에서는 왜 이 품종이 가물견딜성이 약하다고 하였는가. 그들도 농사를 지어보고 찾은 경험이 아니겠는가.

그때 경영위원회책임일군들은 다른 지방에서 잘 안된다고 우리 군에서도 안된다는 법은 없다, 이 품종을 배치하는것은 적지적작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 성공을 확신해나섰다.

군당일군들은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이 깊어졌다. 올해에는 시험을 하는것이 아니라 1천여정보에 도입해야 하는 책임적인 사업이다. 만약 그들이 다른 도의 경험대로 품종배치를 했다가 실패해도 그 책임을 혼자서 지지 않을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대로 품종배치를 했다가 농사를 망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그들이 져야 하였다.

이것을 알면서도 결심을 굽히지 않은것은 오직 당적, 국가적립장에서 사고하고 실천하는것이 바로 책임지는 일군의 옳은 자세라는 관점이 확고했기때문이였다.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한것이다. 그 배짱은 어디서 생긴것이겠는가.

배짱은 신념에서 나오고 신념이 투철하면 옳은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를 대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일군들은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였다. 군의 농사운명, 나라의 쌀독을 먼저 생각하는 일군, 당의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무조건 관철하면 자연과 싸워이길수 있다는 신념이 투철한 일군일 때 이런 담력을 가지고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수 있다.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기술일군들을 대담하게 믿고 떠밀어주자.

결국 군에서는 중간지대 논에도 이 다수확품종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장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작업반기술원들에게 적지적작의 원칙을 지키라는것은 당의 농업정책이다, 자기 지방의 땅과 기후조건에 알맞는 작물과 품종을 심어야 소출을 높여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할수 있다고 해설해주었다. 동시에 종자확보를 선행시키고 모형태를 영양단지모로 정한데 맞게 부식토생산을 비롯한 준비사업을 다그쳐 씨뿌리기를 함으로써 벼모를 실하게 키워내게 하였다.

하지만 가물은 더욱 심해졌다. 모내기철을 앞두고 우물, 굴포의 물이 마르자 분조마다 여러개씩 더 팠지만 실정은 마찬가지였다. 수십년만에 처음 보는 왕가물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해하였다.

당장 논에 댈 물이 없는 조건에서 강냉이와 같은 밭작물을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그때에도 일군들의 책임지는 립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가물피해를 받지 않게 영양단지모를 옮겨심는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농장들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위기는 끝내 닥쳐왔다.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덕삼협동농장 제3작업반 1분조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분조에서 관 8개의 우물이 전부 말라든데다가 5월말에 모내기를 시작할 때부터 비까지 내리지 않아 논판이 말라들자 분조원들모두가 걱정했다. 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짓자고 결의했는데 물때문에 그르치게 되였으니 너무 안타까와 눈물을 흘리는 농장원들도 있었다. 일군들이 적지적작의 원칙을 지키면 가물을 이겨낼수 있다고 했어도 이런 왕가물에서는 열흘을 넘기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때 군과 농장의 일군들이 분조에 나와 비료를 깊이 묻어주고 여러가지 영양액을 벼포기들에 분무하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심을 주었다.

그후 기적이 일어났다. 벼포기들이 모두 살아난것은 물론 아지를 많이 쳤는데 40여일만에 비가 내리자 와짝 자랐다. 이것이 하도 이상하여 뿌리를 뽑아보니 하나같이 길었다. …

뿌리가 땅속깊이 뻗은데다가 영양액을 보충해주었으니 가물을 이겨낼수 있었던것이다.

만약 이곳 일군들이 남의 경험대로 다른 품종들을 배치하였다면 군적으로 수천t의 알곡을 잃어버리게 되였을것이다.

이 사실은 한개 군의 알곡생산을 맡은 일군들의 판단과 결심채택이 얼마나 책임적이여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가물을 이겨낸 포전들을 돌아보며 들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이야기에서 이런 결론을 찾게 되였다.

품종배치문제는 단순한 가물극복이 아니라 당정책옹위전의 한 고리이다. 당의 농업정책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헌신적으로 받들어 알찬 열매를 거둘줄 아는 일군만이 자기 단위 농사를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떳떳이 말할 자격이 있다.

본사기자 대명호

적은 알곡먹이로 고기생산을 늘인 비결

온천군 송현리 박옥금가정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온천군 송현리 5인민반 박옥금가정에서 개인축산을 잘하고있다. 이 가정에서는 지난 39년간 돼지, 닭, 오리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가정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도 수십t의 고기를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지원하였다.

축산을 잘하고있는 비결이 있다.

우선 먹이문제를 풀을 기본으로 해결하고있다.

박옥금동무는 한해에 40여마리의 돼지를 기른다. 자체로 종축체계를 세워 고기생산량이 많은 품종의 새끼돼지들을 받아 기르고있다. 이처럼 많은 돼지를 기르자면 먹이문제를 풀어야 하였다.

그는 당의 축산정책의 요구대로 풀과 고기를 바꾸는 여기에 먹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보고 달라붙었다.

주변에는 능쟁이를 비롯한 돼지가 좋아하는 풀이 적지 않았다. 하루에 수십kg의 먹이풀을 뜯을수 있었다. 이렇게 뜯은 먹이풀을 한달에 1t씩 절임하여 돼지먹이로 리용하였다.

먹이풀을 절임하면서 강냉이가루와 쌀겨 등을 일정한 비률로 섞으면 발효가 진행되여 4~5일후에는 돼지먹이로 리용할수 있었다.

좋은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장마철에 온도가 높고 습할 때에도 절임한 먹이풀은 변하지 않았다. 돼지가 병에 걸리는률이 낮아졌다. 또한 증체률을 높일수 있었고 풀을 삶지 않고 먹일수 있어 많은 땔감을 절약하게 되였다. 이렇게 4월부터 10월까지 절임한 먹이풀을 리용하니 적은 량의 알곡을 가지고도 돼지를 얼마든지 키울수 있었다.

겨울철먹이를 충분히 마련해야 돼지마리수를 줄이지 않고 고기생산을 늘일수 있다. 그렇다고 풀이 없는 겨울철조건에서 알곡먹이를 위주로 하여 돼지를 길러서는 실리가 없다.

그는 이런 립장에서 사색하여 방도를 찾아냈다. 감자잎과 남새잎들을 모두 모아 말리웠는데 그 량이 4t정도 되였다.

그는 남편과 함께 이것을 분쇄한 후 쌀겨, 콩깨묵 등과 섞어먹였다. 그리하여 한겨울에도 돼지마리수를 줄이지 않고 고기생산을 늘일수 있었다.

결과 이 가정에서는 해마다 10여t의 풀먹이를 자체로 해결하여 알곡소비기준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40여마리의 돼지를 기를수 있었다. 또한 매해 수십t의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알곡소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가정처럼 당의 축산정책의 정당성을 믿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실천해나간다면 그 어느 가정에서나 생활을 윤택하게 꾸려나갈수 있을것이다.

전명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근본담보

세계에는 열점지역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조선반도는 군사적충돌위험이 매우 크고 쉽게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는 핵무기로 장비된 방대한 미군무력이 기회만 조성되면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덮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제 나라 땅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져있는 조선반도의 남쪽지역에 기여들어와 북침을 노린 핵전쟁소동을 끊임없이 벌리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정세는 항시적으로 긴장되여있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할 때에 조성되였던 교전직전의 최극단상황은 돌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즉시 조선반도가 전쟁의 불길속에 휘말려들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벼랑끝까지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속에서 되찾은 평온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회담탁우에서 얻어진것도 아니다. 위대한 우리 당이 키워온 자위적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이룩될수 있었다. 이번 사태를 보기 좋게, 통쾌하게 평정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 선군의 총대, 군민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근본담보이라는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우리 당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강철의 의지, 비범한 령도력은 인민의 운명과 민족의 존엄을 걸고 벌리는 준엄하고도 치렬한 반미대결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미제와 생사를 판가름하는 우리의 대결전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있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포함하여 70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우리 당은 반미대결전의 매 단계마다 미제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천재적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는 속에서도 군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끊임없이 북침도발책동을 감행하는 미제의 무분별한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만단의 전투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시였다. 미제가 끝끝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 그날 내각비상회의장에 나오시며 놈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소,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라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여유작작하고 강의한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전쟁은 벌써 이긴 전쟁이라는 신심과 배짱을 가지게 되였다. 전쟁의 계단별전략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무력이 조선사람의 체질과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전법으로 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전화속을 뚫고 최전연에 나오시여 적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안길수 있는 묘안들을 환히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바로 우리 군대가 원자탄을 보유한 미제를 타승할수 있은 기본비결이 있다.

그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미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에 《푸에블로》호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도발들을 일삼으며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였다. 항공모함들과 전략폭격기들을 남조선에 들이밀며 살기등등하여 날뛰던 미제는 종시 수치스럽게 사죄문을 쓰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년대를 이어오며 이룩된 이 빛나는 승리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백두의 기상과 철의 담력, 그 어느 군사전략가도 따르지 못할 작전적구상, 천만군민을 반미대결전에로 불러일으키신 비범한 령도력의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미제가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문제》를 꾸며내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미쳐날뛸 때에도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시여 적들을 기절초풍케 하시고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웠던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걷어내시였다.

1990년대부터 벌어진 조미핵대결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전면적으로 펼치신 선군정치가 안아온 력사의 기적이였다. 칠령과 오성산, 초도와 판문점을 비롯한 최전연초소들을 끊임없이 찾고찾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가 있어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은 걸음걸음 분쇄되였고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핵보유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발칸지역과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나라들이 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미제의 포악한 군화발에 무참히 짓이겨질 때 우리 나라는 강성번영의 주로에 확고히 들어설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시고 이어오신 승리의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고 계신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철의 담력과 배짱, 천변만화의 지략과 작전적구상,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며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불러일으키시는 특출한 령도력은 우리가 대를 이어 승리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이번에 조국앞에 밀려왔던 전쟁의 세찬 난파도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단호한 결심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 주체적인 전략적방침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신념과 의지에 있어서나 배짱과 기상, 지략과 령군술에 있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우리는 련전련승을 이룩하였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자위적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선군의 총대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또 하나의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힘만능주의에 환장한 미제는 핵위협공갈을 일삼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초대형핵항공모함들과 핵전략폭격기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면서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차지하려고 발악하고있다.

흘러온 전쟁사는 자기 조국을 지키는 총대가 약하면 필연코 제국주의자들의 희생물이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이 살판치고 대국들도 자기 일이 아니면 상판하지 않으려 하는 랭전종식후의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그 어떤 지지나 동정도 없이 홀로 사회주의와 평화를 지켜올수 있은것은 선군으로 마련한 총대가 굳건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미제가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막을 내렸다.

올해 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진행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은 미제가 요란하게 저들의 군사적위력을 뽐내는 최신에 항공모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갖 욕실하고 비대한 변태동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었다.

한 외신은 이에 대하여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시작된지 약 40분만에 추격기편대와 잠수함대가 협동으로 펼치는 공중—수중기습타격으로 미해군〈무적함대〉의 운명은 종말을 고하고 그로써 조선인민군의 초단기결전은 사실상 결속단계에 들어설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격침연습에 대한 분석적고찰에서 그런 예상을 이끌어낼수 있다.》고 전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은 핵항공모함이든 핵전략폭격기이든 비대한 몸뚱이를 흔들며 작전구역안으로 들어오는 미제의 모든 목표들을 부나비신세로 만들어줄 타격수단들을 보유하고있으며 또 그렇게 할 결심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이상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다.

미제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서뿔리 해치지 못하고있는것은 우리의 선군총대의 위력이 막강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뭉친 우리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강력한 추동력이다.

평화를 지키자면 힘이 있어야 하며 그 힘은 단결에 있다. 단결의 대오에서 필승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이 생기고 대담한 공격정신이 발휘된다. 핵보유국이라고 해도 군민이 단결되지 못하면 현대적인 핵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되고만다.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것이 군민의 일심단결이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침범하려고 도발적사건들을 조작하고 무분별하게 날뛸 때마다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일떠서군 하였다. 이번에 무력충돌로 치닫던 위기일발의 정세속에서 전선과 후방,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조국수호전에 과감하게 떨쳐나서고 천만이 혁명을 보위하여 총폭탄이 되여나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강한 정신력을 지닌 우리 군민의 일심단결은 미제와의 군사적대결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전쟁위험을 가셔내는 근본원천으로, 온갖 적대세력들의 경제적봉쇄와 제재속에서도 끄떡없이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여있지만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선군의 총대와 군민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평화는 굳건히 수호될것이다.

만약 미제의 최후발악적인 책동에 의해 끝끝내 전쟁이 강요된다면 그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침략의 근원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전세계에 공고한 평화를 마련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리 경 수

여러 나라 단체, 기관과 인사 인터네트에 글 게재

자주의 보루, 불패의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메루, 에꽈도르의 단체, 기관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네트홈페지에 글을 올렸다.

메루조선친선문화협회는 《자주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최근년간의 국제적사변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에 맞설 힘이 없어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하고 류혈과 붕괴의 비극을 겪었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것은 바로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의 천만군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수호하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제 마음대로 날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의지로 충만되여있다.

조선에는 그러한 의지만이 아니라 그를 실현할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조선은 핵무기를 휘두르는 미국에 자기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서고있다.

조선이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춘것은 단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뿐아니라 세계평화에 대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

에꽈도르 김정일도서관과 주체청년소조는 《불패의 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용은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자위적국방력은 굳건히 다져지고있으며 군대와 인민은 반미대결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이끌고계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 마르완 쑤다흐는 인터네트홈페지에 《김일성주석의 건국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력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건국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공화국을 사회주의사상과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는 자주적인 나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 인덕정치를 펼치시였다.

김일성주석의 건국업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에 이어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의 책동에 맞서 사회주의조선을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는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권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

지금 남조선당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위성발사와 핵억제력의 신뢰성담보와 관련한 우리 국가우주개발국 국장과 원자력연구원 원장의 대답과 관련하여 미국상전과 마찬가지로 강도의 론리를 펴고있다. 우리의 조치가 그 무슨 《도발》이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위반》이며 《남북관계의 적신호》로 된다는것이다. 지어 남조선당국자들은 《북이 도발》을 할 경우 《후과가 따를것》이라느니,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느니 하고 고아대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이며 대화상대방에 대한 파렴치한 적대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권리행사를 걸고들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날치는데 대해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우주의 평화적개발은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보편적인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것으로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남조선당국이 그에 대해 쓰다달다 주제넘게 들썩거릴 문제가 아니다.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를 적극 개발, 리용하여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는것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합법적권리에 따라 우주개발에 나서는데 남조선당국이 도대체 무슨 리유로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가 하는것이다.

우리의 핵보유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조치이다. 인류를 상대로 서슴없이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핵전범자인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핵선제타격대상명단에 올려놓고 위협을 가해왔다. 지금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림으로써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핵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밑에 남조선호전광들도 《북의 전지역타격》을 운운하며 800km사거리의 탄도미싸일을 시험발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다. 핵위협을 동반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날로 악랄해지는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우리가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로 대답해나서는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하다.

진짜 도발자는 세계도처에서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를 유린하고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자주적권리에 대해 《도발》이니 뭐니 하고 생트집을 걸고 야단법석대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대해 떠벌이는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극악무도한 도발이다.

국제사회앞에 응당 문제시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공정한 내외여론의 규탄을 받아야 할것은 주권국가의 자위권행사가 아니라 그것을 강도적궤변으로 우롱모독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해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에 대해서는 모르는척 하면서 골목장사군의 싸구려타령처럼 《도발》이니, 《위반》이니 하고 악청을 돋구는것은 외세와 작당하여 어떻게 하나 반공화국대결기운을 조성하고 동족을 모해압살하려는 저들의 흉심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자주적권리에 감히 도전해나서는것은 북남관계개선에 또 하나의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남북관계의 적신호》니 뭐니 하고 우리를 무턱대고 시비질하기 전에 대화상대방의 자주적권리를 무시하며 외세와 작당하여 국제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리는것이 북남관계에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몰아오게 될것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사태의 본질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리 효 진

우리 청년들의 삶의 요람을 해치려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의 어중이떠중이들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북인권법》을 조작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는 보도에 접한 우리 500만 청년전위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북인권법》조작책동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극악한 정치적도발로, 이 세상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을 모독하는 범죄적망동으로 락인하고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오늘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곳은 남조선이며 특히 청년들의 초보적인 지향과 요구,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암흑사회는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이 등록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을 때 남조선에서는 청년대학생의 80%이상이 학비를 감당할수 없어 로동현장에서 고역의 피땀을 흘리고 생체실험에까지 몸을 내맡기고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떠받들리우며 사회주의대건설장을 비롯한 청춘의 활무대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을 때 남조선에서는 수백만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고있으며 꽃나이청춘들이 타락과 염세에 빠져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위대한 청년중시의 정치아래 청년강국이라는 시대어가 태여나 세상을 격동시키는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과 청년이라는 이름이 불행과 고통, 죽음의 대명사로 되고있는 남조선의 참혹한 실상은 인간의 참된 보금자리가 어디이고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이 어디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청년실업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남조선위정자들이 제 할바는 하지 않고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모략소동에 발광하는것은 실로 가소롭고도 파렴치한 망동이며 추악한 대결적정체만을 낱낱이 드러낼뿐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의 삶의 보금자리이고 행복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자들을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

청춘의 희망도 미래도 다 맡아 꽃피워주는 고마운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사랑하며 목숨바쳐 지켜가려는 우리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는 날을 따라 천백배로 굳세여지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위대한 청년강국의 성스러운 년대기를 찬란히 수놓아가고있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불패의 진군대오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해나선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다.

주체104(2015)년 9월 20일
평 양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그만두라

조선학교지원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위 도꾜에서 전개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어머니들의 시위투쟁이 18일 도꾜에 있는 일본 문부과학성앞에서 진행되였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량옥출과 총련일군들, 간또지방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 조선대학교와 조선고급학교 교직원, 학생들, 학부모들, 재일동포들 그리고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 대표를 비롯한 일본 시민단체 인사들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정당한 교육은 그 누구도 침해 못하는 응당한 권리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차별은 그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지금도 계속되고있는것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조선에 대한 침략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일본당국이 정치적인 리유를 내걸고 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에서 제외하는것은 용납 못할 처사라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일본당국자들이 일본의 인권관련법에 따라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성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투쟁은 응당 보장되여야 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면서 조선학교지원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시위투쟁참가자들은 조선학교지원제도의 즉시 적용을 요구하여 횡단막을 들고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즉시 적용하라!》, 《조선학교 아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용서하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그만두라!》 등의 구호들을 웨쳤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북극을 노리고 강화되는 미국의 대결책동

최근 미국의 알라스카주에서 북극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8개 북극리사회 성원국들과 북극지역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12개 나라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 지역에서의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번 회의를 두고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기후변화》의 간판을 내걸고 북극지역에서의 자원개발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북극쟁탈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평하였다.

하다면 정세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한것은 무엇때문인가.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미국력사에서 처음으로 북극지역에 코를 들이밀었다. 그는 알라스카주를 돌아치며 기후변화로 인한 현지주민들의 피해상황과 화석연료사용문제, 깨끗한 에네르기리용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루루이 렬거하면서 북극지역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북극리사회의 롼번제의장국을 맡게 되였다. 의장국의 지위를 차지한 미국이 북극지역문제에서 저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제회의를 주최한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함께 이 회의에 참가한다, 그 무슨 주요연설을 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웠다. 최근 오바마는 북극지역개발을 다그치기 위해 2020년까지 쇄빙선단을 더욱 늘이고 새로운 북극항로개척을 위한 베링그해 등의 해도들을 갱신할데 대하여 지시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대통령이 자국의 쇄빙선단을 늘일것을 지시함으로써 북극개발에 참가한 다른 나라들 특히 로씨야를 따라잡으려고 시도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주도의 나토성원국들은 북극지역에서 집중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결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극지역개발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적타산이 깔려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북극은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지구의 마지막보물고로 불리우고있는 북극에는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여있다. 북극의 해저에만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하지 못한 원유 및 천연가스자원의 약 20%가 있다고 한다.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를 련결하는 바다길로서 다른 수송로들보다 거리가 훨씬 짧으면서 안전하다. 이 항로를 리용하면 배길이 수에즈운하로 가는것보다 많이 줄어들고 항행시간도 훨씬 단축되여 그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크다. 군사적, 경제적측면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는 북극지역은 주변나라들뿐아니라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의 리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으로 되고있다.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개입이 강화되고 천연자원과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렬해지고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로씨야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로씨야는 10개의 북극기지를 복구한데 이어 4개의 기지를 더 건설하고있다. 이미 40척의 쇄빙선을 가지고있는 로씨야는 11척을 더 건조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북극권의 야말반도에서는 가스발개발과 액화천연가스생산공장건설이 진행되고 유럽으로부터 아시아까지의 전통적인 항로를 대신할수 있는 북극항로개척이 다그쳐지고있다. 로씨야는 올해중으로 이 지역의 군사하부구조대상건설과 특수기술기재공급사업, 10개의 군용비행장개건사업을 완료하려 하고있다.

북극진출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에서도 쇄빙선을 건조하는 등 이 지역에 발을 붙이려 하고있다.

로씨야의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실지 북빙양에서 원유와 가스를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고있다. 군함들과 쇄빙선들이 건조되고있으며 북극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본도 대륙붕자원분배에서 한몫 차지하려고 현대적인 선박들을 건조하고있다. 북극문제를 놓고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평하였다.

북극리사회 의장국의 지위를 리용하여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책동하는 미국에 의해 북극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군사적쟁탈전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여론들은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고조되는 국제적여론—《피난민사태의 장본인은 미국이다!》

최근 한 국제기구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간 피난민 및 이주민수가 년초부터 현재까지 40여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수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스로 건너간 피난민 및 이주민수가 약 31만명, 에리트레아와 나이제리아에서 이딸리아로 건너간 피난민 및 이주민수가 약 12만명에 달하였다.

유럽뿐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밀려드는 피난민 및 이주민수도 대폭 늘어나고있다. 유럽위원회의 한 대변인은 피난민문제는 이미 1940년대이후 최대규모에 이르렀으며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엄혹한 피난민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평하였다.

피난민사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적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있다. 피난민들이 맨 처음으로 도착하는 이딸리아 등 남유럽나라들은 북쪽의 유럽동맹 성원국들에 협력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이다.

바빠난 유럽동맹이 긴급대책을 세운것이 피난민할당제였다. 각국이 의무적으로 피난민들을 일정하게 받아들이도록 한 이러한 할당제는 여러 나라들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있다.

유럽동맹내에서의 의견불일치로 동맹이 분렬위기상태에까지 이르고있다. 영국인들속에서 유럽동맹으로부터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미국잡지 《뉴스위크》 등 여러 나라의 출판물들은 피난민문제 등으로 유럽동맹이 분렬위기에 처해있다고 평하고있다.

세계의 이목이 피난민문제에로 집중되면서 이러한 사태의 근원이 어디에서 누구때문에 빚어졌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이 모아지고있다.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가 《피난민문제의 진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론평은 지금 세계는 피난민문제로 대동란에 직면해있다, 《인권옹호》를 제창해온 유럽나라들은 피난민을 강제로 추방할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오늘 피난민의 절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수리아, 리비아, 수단 등 《테로와의 전쟁》 피해자들이다, 2001년 《반테로전》의 명목으로 개시된 미국주도의 나토가 일으킨 아프가니스탄전쟁은 현대판피난민문제의 주요발화점이다, 유럽나라들은 오늘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지만 이 전쟁을 주도한 대서양건너의 미국만은 오히려 무사한 상태에 있다라고 까밝혔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여러 지역에서의 피난민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전하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미국의 AP통신이 유럽피난민위기를 산생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폭로하였다. 통신은 미국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린 전쟁, 수리아내전의 장기화, 리비아정권의 붕괴후 무정부상태의 지속, 이것이 유럽피난민위기의 근원이라고 강조하였다.

오스트리아신문 《크로넨 짜이퉁》은 론평에서 피난민문제를 산생시킨 미국이 이제 와서는 유럽나라들이 피난민들을 비인간적으로 다루고있다며 유럽동맹에 훈시하고있다고 야유하면서 유럽나라들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도이췰란드잡지 《슈피겔》은 현재 유럽나라들은 피난민문제로 고통을 겪고있다, 베를린 한개 도시에서 지난 7월 한달에만도 1000명의 수리아피난민을 받아들이였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뒤전에 숨어있는 상태이다라고 평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은 미국의 《신간섭주의》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질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까밝혔다.

《유럽이 미국에 추종한 대가로 수백만에 달하는 전쟁피난민사태에 말려들었지만 미국은 강건너 불보듯 하고있다. 3살 난 어린 피난민의 시체가 바다가모래불에서 발견된 참상이 세계를 크게 놀래웠으나 미국은 요지부동이였으며 그 책임을 유럽의 〈동생들〉에게 밀어붙이고 심지어 피난민위기의 책임을 세계가 골고루 부담해야 한다고까지 말하였다.》

국제사회의 비난에 몰린 미국이 수리아피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느니, 다음회계년도에 피난민을 많이 받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체면을 세워보려고 오그랑수를 쓰지만 세계와 인류앞에 저지른 이 모든 범죄적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민주주의》,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오늘과 같은 《인도주의》 무덤을 만들어놓았다.

세계도처에서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을 붕괴시키고 인간살륙만행을 감행한 미국이야말로 최대의 인권유린왕초로서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룡

ㄱ-51148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